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검사 측에 실망, 재판 불공정 했다”

(피해자 유가족 주장)

SPECIAL STORY

2년 전 교통사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독녀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가 재판 불공정을 주장하며 외로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에 치어 유명을 달리한 안리안(당시 15세) 양의 아버지 안제이 씨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옥튼 고교 앞 도로에 피켓을 들고 다시 섰다. 그는 “내 딸을 잃은 심정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다리 한쪽을 잘라낸 듯한 고통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2022년 6월 7일 범인 우스먼 사히드(당시 18세)는 친구들과 함께 BMW 승용차를 몰며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의 브레이크 레인 도로를 81마일로 질주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으면서 인도를 덮쳤다. 이 사건으로 한인 안리안 양 등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4월 25일 재판에서 피고는 배심원 재판을 통해 징역 4년 권고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피해자 가족은 재판 불공정을 주장하며 사고 2주기를 맞아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재판이 매우 불공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검사가 소송을 소극적으로 진행했고 협상의 가능성도 제기했다”면서 “형사재판이라서 가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피해자는 카운티 검사에 의지해야 하는 시스템이라 불법 뇌물 등이 동원되면 검사가 피해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온라인 청원서를 통해 “배심원 재판이 무척 불공정했으며 범인이 매우 가벼운 4년 권고형을 받았다”

한인 여고생 교통사고 사망사건 2주년
피해자 아버지 “다리 한쪽 잃고 사는 느낌”



2년 전 당시 사고 현장인 페어팩스 카운티 옥튼 고교 앞에서 지난 7일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면서 부당함을 지적했다. 유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버지니아의 교통사고 과실치사 관련 법률이 캘리포니아보다 처벌 규정이 훨씬 강력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검찰청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범인이 아직 정식 운전면허증이 아닌 러너스 퍼밋 상태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러너스 퍼밋 보유자가 운전 을 하려면 정식 운전면허증을 갖춘 21세 이상 성인이 조수석에 동승해야 한다. 검찰은 동승자 세명 중 두명의 운전 면허 상태를 확인했으나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상태다. “운전 면허가 없는 동승자가 조수석에 앉았다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유가족은 또한 검찰이 매우 비협조적이었다고 비판한다. 검찰이 수집한 피고 측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피해자 측의 요구에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증거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유가족 측은 “변호인단은 범인이 전도유망한 청년이라고 시시콜콜 변론한

반면, 검사는 사건 개요를 단 10분동안 성의 없이 요약하는 등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이들은 “검사는 시간상의 제약을 이유로 피해자 유가족 증인을 3명으로 제한했으나, 피고 측은 시간 제약 없이 7명의 증인을 채택했다”고도 했다.

한편 유가족은 청원서를 통해 범인이 비교적 최근에 미국에 이민 온 파키스탄 출신으로, 옥튼 고교 졸업 후 노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라고 밝혔다. 그의 아버지가 델레스 공학에서 셔틀버스 운전사로 일하며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도 알렸다. 유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범인을 만났으며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으며, 매우 오만방자해 모욕감마저 느꼈다”고 전했다.

피고는 유죄확정으로 인해 과실치사 사건 당 각 10년, 즉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선고형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랜디 벨로우스 주심 판사가 배심원단의 4년 징역형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형량을 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종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9일 오후 1시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다.

김윤미 기자

대북확성기 6년 만에 재가동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 협박

용산, 북 3차 오물풍선에 맞대응

정부가 9일 북한의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후 확성기를 철거한 지 6년 만이다.



[사진 합성]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NSC 직후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출입기자

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 오후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일단 방송을 재개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갈지는 추후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합참은 이날 군이 보유한 고정식 확성기 중 일부만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일훈·이근평·이유정 기자

▶ 15년 ‘확성기’ 로 이어집니다



한복 차려입은 브라질 예수상 지난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대 예수상에 푸른색 한복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8일부터 브라질에서 개막한 ‘한국의 빛’ 전시와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자 기획됐다. [사진 문체부]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받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800만 달러' 3차 뇌물 기소 유력

대선 3년 앞 정치권 먹구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기소하기 위한 본격 범리 검토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처벌 여부가 3년 뒤인 차기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게 되면서다.

이 대표는 4·10 총선 전에도 구속 기로에 섰지만 총선 압승 후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차기 유력 주자가 된 데다 검찰이 만지작거리는 뇌물죄의 무게는 배임 등 그간의 혐의와는 무게가 달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2라운드도 길고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물리치기 위해 검사 탄핵과 대통령 임기 단축 등 초강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3년 앞둔 정치권이 그야말로 '시계 제도'다.

총선 참패 후 돌과구를 찾지 못하던 여론은 총공세에 나섰다. 선봉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섰다. 그는 9일 SNS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

이화영 뇌물·대북송금 등 혐의 1심 판단			이화영 혐의 관련 이재명 대표 수사 상황		
구분	적용 혐의	법원 판단	구분	적용(예상) 혐의	진행 상황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특기법상 뇌물	유죄, 일부 무죄	스마트팜 및 방북비용 대납	특기법상 뇌물, 제3자뇌물	이화영 1심 유죄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일부 무죄		경기지사·대선경선 포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
스마트팜 및 이재명 방북비용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죄, 일부 무죄 (환차기, 조선노동당 지급)			
법인카드 등 수수 은행 지시	증거인멸교사	유죄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전날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쓴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8일 "이 대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금"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범죄자가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자"고 하는 등 여론 유력 주자도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사위를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조지연 원내대변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라며 연일 총공세 중이다.

이재명, 이화영 판결 뒤 사흘째 침묵 친명계는 수사 검사 탄핵안 논의 중 여당 "피고인이 대통령 되려고 해"

반면에 야권은 숨을 고르는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9일까지 사흘째 말이 없다. 민주당의 공식 대응도 판결 당일 "2심 재판에선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것 기대하겠다"(황정아 대변인)는 논평이 전부였다. 이혜식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에 이 대표의 공모나 지시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당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됐다. 1심 법원은 이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액을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비명계 인사는 "그간 문제가 돼 온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은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사법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깔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는 끊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술자리 회유와 겁박으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온 이들은 입법

으로 검찰과 사법부에 맞설 태세다. '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판결 전인 지난 3일 이미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등 정권 핵심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맞불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달 31일 이상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규명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도 재발의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시간을 끌면 정국 혼란만 이어질 뿐이다. 사법방해를 뚫고 사법부가 서둘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김정재 기자

4번째 사법리스크...

법원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 인정" 검찰 "이재명 보고받았나" 입증 과제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도 제기 법조계 일각 "정무적 고려 필요"

지난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로선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공

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납시켰다는 내용이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800만 달러를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관계자에게 줬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쌍방울 측 외화 밀반출 혐의는 394만 달러만 유죄를 인정하고, 이 중 200만 달러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 명목으

로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인정했다. 조선아태위가 조선노동당 외곽 단체로 제재 대상에 지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회장 본인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성태의 경우 쌍방울 자체 방북을 추진하다가 통일부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된 상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북한에 거액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송명철로부터 아태위 부실장 '령수증'을 받는 등 경기지사 방북 관련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최소 200만 달러

를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인정했다고 인정했다. 조진아태위가 조진아태위와 조진아태위가 조진아태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그간 쌍방울그룹이 북한(제3자)에 송금한 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건네는 뇌물이라고 의심해 왔다. 검찰은 또한 제3자 뇌물죄에 800만 달러 전체를 적용하는 방안인 것으로 파악했다.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된 행위와 목적 등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의율할 도대가 마련됐다"며 법원이 200만 달러만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례금으로 확인된 액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했

는지를 입증하는 게 검찰로선 최대 과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후 8개월 보완수사를 거쳐 온 검찰은 재판부가 유죄 근거 중 "김성태가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또 재판부가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여러 번 언급한 것도 검찰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정무적 고려도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김준영·허정원

워싱턴 날씨 (°F)

11일(화)	78-61	14일(금)	93-72
12일(수)	84-66	15일(토)	88-68
13일(목)	90-72	16일(일)	88-70

6월 10일(월) 78~6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 **571.405.6540** |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www.alexkwakesq.com | alexkwakesq@gmail.com

“오른 물가 60% 기업 이익으로 돌아가”

반독점 규제 갈수록 약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물가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누가 취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들 이 최근 3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추가 지출한 금액의 60% 가까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산업화된 미국의 농업 관계자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담합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연방검찰은 2011년 켈로그와 크래프트 푸드 등을 포함한 대형 식품 제조업체 여섯 곳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급 제한 등의 조치로 달걀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연방법원 대 배심은 작년 11월에서야 유죄판결을 내렸다.

비영리 소비자단체 푸드앤워치닷오르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대형



그로서리 체인이 독점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100년 넘게 지속하면서 시장과 가격을 조작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기를 서슴지 않았는데, 코로나 펜데믹을 기점으로 그 탐욕이 더욱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또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펜데믹 초기인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미국 가구의 식품 구매 지출 비용은 50% 이상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그로서리 체인의 이익은 36%나 증가했다. 식품 추가구매 지출 비용의 72%가

그로서리 업체의 순이익으로 잡힌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은 행정부는 식품업계 관련 반독점법 규제를 계속 약화시킴으로써 독과점 그로서리 업체의 이익에 복무해 왔다.

최근 대형 그로서리 체인 크로거와 알버트슨 사이 합병이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결국 로비에 굴복해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김욱재 기자

“미한 기업인 위한 혁신 방안 논의”

미한기업인친선포럼 포럼 개최 기업인, 정부관리 및 각계 전문가 초청

미한기업인친선포럼 (AKBFF, 회장 박상근)이 오는 22일 포럼을 개최한다.

버지니아 폴스처치 소재 매리엇 페어뷰 호텔에서 열리는 포럼의 주제는 ‘혁신을 위한 지름길(Innovation Highways)’로, 미한 기업인들의 성공을 위한 각종 전략을 공유한다. 특히 포럼에는 IT기업 전문가, 정부관계자, 액셀러레이터 및 법조계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과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몽고메리카운티와 VA 페어팩스카운티 정부의 기업진출협력부서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해 해외 기업의 교두보로서의 워싱턴 지역의 장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세션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은 정부관계자들과 IT기업 전문가들 간의 대화와 논의로 구성되는 첫 번째 세션에 이어, 각 부문 전문가들이 미국 진출 기업들이 당면할 실질적인 안건과 문제점을 짚어주는 두 번째 세션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AKBFF는 2018년 한국에서 시작된 한미기업인친선포럼의 미국 파트너 기관이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중소기업들간의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2023년에 설립됐으며 버지니아에 본부를 두고있는 비영리단체다.

박세용 기자



VA 영킨 주지사, CA식 차량규제법률 폐기

글렌 영킨(사진) 버지니아 주지사가 올 연말까지 캘리포니아 방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영킨 주지사는 내년 1월 1일 이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불합리한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버지니아 주민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차량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축소·금지할 방침이다.

영킨 주지사는 취임 이후 캘리포니아 방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계획을 비판해 왔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는 독립적



인 국가로서, 왜 3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전기차량에 대한 잘못된 믿음만 강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은 “버지니아 주민들은 더이상 캘리포니아 표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확인해줬다. 버지니아 환경부(DEQ)도 “버지니아는 캘리포니아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기에 연방정부 규제책이 디폴트 값으로 작동한다”고 확인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스콧 서로벨 민주당 상원 다수당 대 표는 “영킨 주지사는 자신이 마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의회가 이미 법률로 제정한 것을 주지사가 어거했다고 선언한 것이며 미야레스 검찰총장이 그를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부 환경법 센터는 “두말할 필요없이 불법적이며 근시안적인 발언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버지니아 의회는 2021년 환경법 개정 법률을 통해 2024년부터 판매 신차 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자동차 제조사에 게만 적용되고 딜러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목표 판매량에 미달한 업체는 이를 초과달성한 업체로부터 판매 크레딧을 구매해 내연기관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김욱재 기자



한국의국어대 워싱턴 동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외대 동문회 힘 모으자”

야유회 열고 각종 계획 발표

한국의국어대학교 워싱턴 동문회(회장 최태은)가 마련한 야유회가 지난 7일 센터빌 소재 불런 와이너리에서 개최했다.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2024년도 상반기 회계보고 및 하반기 행사 계획발표 등이 이뤄졌으며, 김민지 변호사의 가정법 세미나가

진행됐다.

최태은 회장은 “동문 여러분들의 협조로 비영리단체 등록, 16인 이사회 구성, 연간 행사 계획 수립 등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하며 “힘을 모아 활성화된 동문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외대 동문회는 7월 모교 학생들의 워싱턴 방문 일정에 맞춰 관련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인원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AKBFF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501(c)(3) 비영리 단체입니다.

American Korean Businessmen Friendship Forum (AKBFF)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

한미 혁신 생태계의 지름길 :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성공 전략

Innovation Highways : Strategies for Successful Korea-US Entrepreneurship

AKBFF에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VA 페어팩스 카운티와 MD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의 기업진출협력부서 관계자들도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의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과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여러분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 되시길 기대합니다.

Date Saturday, June 22, 2024 (5-8 p.m.)
Location Falls Church Marriott Hotel Fairview Park
Alexandria Conference Room
3111 Fairview Park Dr. Falls Church, VA 22042
Ticket 참가비: \$100 RSVP by June 17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Contact (703) 447-8175 (240) 281-7949 akbff.org@gmail.com

www.akbff.org | akbff.org@gmail.com
7307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
(703) 447-8175 | (240) 281-7949

■ 회 장: 박상근
■ 이사장: 실비아 패튼

부모·자녀 돈 모아 주택 공동매입 증가

치솟는 집값 대응책으로 부상 정부 지원 이용 땀 더 효과적 증여세·상속세 면세도 가능

#.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지영씨 부부는 직장인 딸과 함께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다. 이씨 부부의 연 소득은 6만7000달러, 딸은 6만 달러로 3인 가족 연 소득은 총 12만7000달러였다. 이씨 부부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딸의 소득을 더하고 LA시의 첫 주택구입자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MIPA)을 이용해 70만 달러의 집을 매입할 수 있었다. 즉, 이씨 가족이 2만5000달러를 내고 정부 지원금 11만5000달러 합해 총 14만 달러를 다운페이했다.

#. 4명의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사는 김정현 씨 부부는 자녀 1명의 수입까지 포함한 월 소득은 9700달러. LA시 저소득층 다운페이 보조프로그램인 LIPA로 16만1000달러를 받고 또 그린라인홈 프로그램으로 3만5000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 총 19만6000달러를 다운페이하고 내 집을 장만할 계획이다.

고금리에도 주택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자녀들도 내 집 장만이 쉽지 않다. 집값이 너무 비싸 어느 한쪽의 소득만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부모와 자녀가 힘을 합치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도 헛된 꿈이 아니다. 최근 부모와 자녀가 소

득을 함께 모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첫 주택구입자인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고 정부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는 한인 이 증가하고 있다”며 “LA시 경우 첫 주택 구입, 지역중간소득(AMI) 등 자격 요건이 맞으면 최대 20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인기”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이라면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더하면 주택 구입이 가능하고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우앤손 회계법인 피터 손 대 표는 “공동 주택구입 후 부모가 명의에서 빠질 경우 증여세·상속세 등 과세 대상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1361만 달러가 면세한도로 첫 주택구입자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월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가 공동 주택구입을 할 때 자녀가 향후 소송 및 이혼 진행 시 채권자가 주택을 압류하거나 주택 자산 25만 달러(개인) 혹은 50만 달러(부부) 이상이 되면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영 기자



메디케어 사기 기승... 한인 피해 속출

(시니어)

연방 검찰이 메디케어 등 의료보험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일 연방 검찰은 오는 9일(일)까지 이번 주를 메디케어 사기 예방 주간으로 발표하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사기 합의 및 판결로 26억 8000만 달러를 회수한 가운데, 18억 달러(67%) 이상이 의료 부문과 관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얼마나 의료보험 사기가 만연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국립 의료사기 방지 협회(National Health Care Anti-Fraud Association)에 따르면 의료 사기는 연간 최대 30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만큼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범죄 중 하나다.

특히 언어장벽 등으로 소통이 어려운 한인 시니어를 겨냥한 메디컬·메디케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흔한 메디컬·메디케어 사기 행각으로는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의도적 비용 청구 ▶불필요한 의료행

연방 검찰, 예방 주간 설정
안락은 치료에 수만불 청구
개인정보 빼가 의료비 청구



위 ▶뇌물을 받는 행위 ▶개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위조 등이다.

최근에는 타인종 사기단이 한인 시니어들에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메디케어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정부에 거액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주 소재 비영리 건강보험사 ‘블루 실드오브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엠 메디케어 담당 부사장 및 총괄 관리자는 지난 3일 공문을 통해 “노인 의료 서비

스 사기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커뮤니티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 실드는 특히 전화로 사기 피해를 보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으며 주의를 경고했다.

블루 실드는 ▶건강보험 관계자를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메디케어 혜택이 만료된다고 갱신을 위해 어카운트 번호를 알려 달거나 ▶주 문한 적 없는 카테터 등 의료 장비를 배송받았다면 사기 피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통신위원회는 금전이나 선물 제의에 현혹되지 말고 주치의나 메디케어 제공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1-800-633-4227로 전화하라고 조언했다.

장수아 기자



중앙일보 동창회 골프 챔피언십 성황 마주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골프 대회인 '제34회 중앙일보 동창회 골프 챔피언십'이 6일 리버사이드 지역 캐년크레스트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23개 팀, 92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더운 날씨에도 각 학교 선수들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참가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최고의 기량을 펼쳤지만 한편으로는 타학교 동문들과 우정의 나누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대회 시작 전 참가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회 최종 성적은 온라인(Koreada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년크레스트컨트리클럽=김상진 기자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출범

‘2024 코리안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이 6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은 로렌스빌에 있는 귀넷행정법원청사에서 열렸다. 애틀랜타 한인사회 인사뿐 아니라 귀넷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재단 창립을 축하했다.

그동안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는 애틀랜타 한인회 주최로 열렸으나, 이번에 출범한 재단은 한인회 출신 임원들이 주축이 되었을 뿐, 한인회

와는 별개의 단체다. 축제는 오는 10월 5~6일 로렌스빌의 슈가로프밀스 주차장에서 열린다.

안순해 재단 이사장은 발대식에서 “새롭게,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한인회 문 제와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미엘 사무총장은 22명의 재단 이사를 소개했다. 김종훈 자문위원장은 이어서 “한인 원로들이 아닌 타인종 커

뮤니티, 한인 2세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받고 다른 커뮤니티에 다가갈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소피아 최 WSB-TV 앵커가 이날 사회를 맡았다.

재단 측은 다음 주부터 홈페이지(koreanfestivalfoundation.com)에서 부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약 18만 스퀘어피트(sqft) 공간에 150개가 넘는 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재단 측은 또 “행사 정산이 끝난 후 남은 수익금은 지역사회 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해진 곳은



발대식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애틀랜타 밀산선교단, 귀넷 카운티 정부 산하 환경미화회와 ‘귀넷 클린 & 뷰티 풀’이며, 다른 단체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재단 창단이 결정된 뒤 한인회 측에서는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에서 9월 28일 별도의

코리안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한편 재단 측은 애틀랜타 한인사회와 오랜 인연을 가진 페드로 마린 주 하원의원에게 평생공로상을 전달했다. 마린 의원은 22년 동안 주 하원의원직을 역임했으며, 내년 은퇴한다.

윤지아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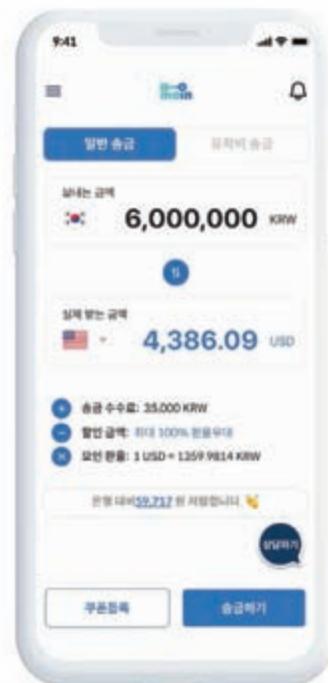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모인 미국 해외송금 누구나 환율 우대 100%



- ▶ 미국, 평균 1일 이내 빠른 송금 완료
- ▶ 은행 대비 최대 90% 저렴한 수수료
- ▶ 쉽고 간편하게 1분 이내 송금 신청 끝

이 광고를 보셨다면?
▼ 모인 송금 수수료 할인 혜택 받기!



모인 앱다운로드 후 로그인 ▶ [내 정보] > [보통 우편] > [비트] 우편 코드 입력
▶ 메인 화면 [무선송금] 후 송금하면 끝!

모인 해외송금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10만 마일 넘은 중고차 “구매 신중하라”

전문가들 “마일리지 마지노선”
주요 부품 문제 발생 가능성↑
저렴해도 자동차 이력 살펴야



주행거리가 10만 마일이 넘는 중고차는 구매시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스틴 지역 한 딜러에 전시된 중고차들.

신차 가격 및 오토론 이자율 부담에 중고차 현찰 구매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보다는 주행거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주행거리가 10만 마일이 넘어갈 경우 구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융정보사이트 고뱅킹레이츠가 최근 보도했다.

이유에 대해 업계 전문가인 립 딜란 EV하이프 설립자는 “10만 마일은 차량의 신뢰성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마지노선이 되는 최대 마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장률이 적고 내구성 좋기로 정평이 난 모델의 경우 여섯 자릿수 마일리지라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사위를 굴리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이다.

딜란은 “10만 마일이 넘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과 같은 주요 부품에 잦은 문제가 발생한다. 부품 수리 또는 교체에 드는 평균 비용이 엔진은 3000~8000달러, 변속기 1800~3400달러에 달해 저렴한 구매가로 인한 초기 비용절감 효과를 훌쩍 넘

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딜란 외에도 다수의 전문가가 중고차 구입시 10만 마일이 상한선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차량 이력 보고 플랫폼 범퍼의 에린 캠프 소비자 담당도 “중고차 구매시 주행거리 10만 마일이 기준점이 되는데 다수의 모델이 더 많은 유지 보수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라며 “모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엔진 및 기타 부품이 10만 마일이 지나면 마모가 더 심해져 일반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주행거리도 중요하지만, 차량 종류, 브랜드, 주행 환경, 정비도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주목됐다. 자동차보험 전문 오토인슈어런스의

업계 전문가 펠라니 머슨도 “디젤 트럭은 개스 엔진 트럭보다 최소 10만 마일 더 오래갈 수 있다. 혼다나 도요타는 닷지보다 최소 5만 마일 이상 더 신뢰할 수 있다”면서 “동부지역서 주행한 차는 제철용 염화칼슘에 심하게 노출됐을 수 있어 10만 마일이 넘는 차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프로드 전문 플랫폼 트럭브리게이드의 설립자 라이언 호튼은 “중고차 구매를 피해야 하는 주행거리 기준은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차를 찾는다면 잠재적 이슈에 대비해 일부 보증이 되는 10만 마일 미만 차량을 고려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전기차 캐즘 선방한 현대차 수소로 친환경 시장 선점한다

1~5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1%
역대 최대 판매...EV9, 성장세 견인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미국 내 역대 최대 전기차 판매를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전지를 앞세워 친환경차 시장 우위에 도전한다.

현대차는 지난 2월 현대모비스와 수소연료전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대모비스로부터 관련 사업을 넘겨받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서 분산 수행하던 수소전지 관련 역량과 자원을 한데 모아 제품 개발과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9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4만8838대(점유율 11.2%)를 팔아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기간 미국 시장 내 점유율도 역대 최고다. 특히 지난해 말 출시된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EV9이 7766대 팔리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반면 수소차 판매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SNER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현대차

의 수소차 판매량은 69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044대)보다 66.2% 줄었다.

이 기간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3743→2382대)이 감소한 영향이 크지만, 일본·중국 자동차 업체들보다 감소 폭이 더 크다. 지난해 1분기 54.6%였던 현대차의 수소차 시장점유율은 올해 1분기 29%로 줄어, 토요타(36.4%)에 1위 자리를 내줬다. 하이마 등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34.5%에 달했다. 업계에선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 기술 경쟁력을 높여 승용차·상용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수소차 ‘넥쏘’의 후속 모델을 내놓기로 했다. 2018년 출시 이후 7년 만의 후속 모델 출시다.

특히 도시 외곽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상용차 시장을 중심으로 수소 전기트럭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열린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에서 신형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공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오상권 기자

드디어 베일 벗는 애플 AI 음성비서 ‘시리’ 목소리날까

‘AI 인텔리전스’ 시험버전 나옴
문서요약·자동답변 등 실용성 초점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라는 새 생성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선보인다.

8일 블룸버그와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본사에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를 열고 새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다. 이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애플은 시험 버전을 먼저 공개한 뒤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전망이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 같은 화려한 기능보다 실용적인 AI에 초점을 맞춘 기능일 것으로 예상

된다. 회의나 강의에 쓸 수 있는 AI 기반 요약과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에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능, 웹브라우저인 사파리 내 웹페이지 요약, AI 사진 수정, 생성 AI를 활용한 맞춤형 이모티콘 생성 기능 등이다. 애플은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작업을 기기 내에 온디바이스 형태로 처리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낼지 판단하는 기능도 애플 인텔리전스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비서 시리도 자체 LLM(거대언어모델)의 힘을 빌려 업그레이드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리는 사용자를 대신해 앱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시리에 이메일 삭제, 사진 편집, 뉴스 기사 요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애플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플 기기들에 오픈 AI의 자체 기술과 AI 도구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구글의 멀티모달 AI인 제미니에도 적용하기 위해 구글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애플의 새 AI는 아이폰 운영체제 iOS 18 등에 탑재될 전망이다. 아이폰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아이폰 15 프로, 프로맥스와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16 시리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나 맥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M1 칩 이상이 탑재된 기기여야 한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AI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해 온 애플은 자신의 정보가 판매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읽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시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조림)
웨이브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D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19085; VA MC-7182; TX 2501870; PA 1068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베일 쌓였던 푸틴 두 딸, 공개석상에 등장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연설 '건강악화설' 푸틴, 후계작업 분석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이 지난 5~8일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 연사로 나섰다. 두 사람은 그간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터라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AFP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딸로 알려진 마리아 보론초바(39·왼쪽 사진)와 카테리나 티코노바(37·오른쪽)가 최근 잇따라 SPIEF 연사로 나섰다.

먼저 티코노바가 6일 국가지적개발재단 총책임자로 군산복합체의 기술주권 보장 관련 영상 강연을 했고, 다음날 소아내분비학자인 보론초바가 생명공학 혁신 등에 대해 연

설했다.

두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 2013년 이혼한 전 부인 류드밀라와 사이에 낳은 딸들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딸들이 과학·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손주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름을 밝힌 적은 없다.

외신들은 최근 건강 악화설에 시달린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사후 크렘린궁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 두 딸을 공개 석상에 세운 것이라 분석을 내놨다. **한지혜 기자**

“북중러 핵무기 보유확대 우려”

제이크 설리번(사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9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간의 핵무기 협력 문제와 관련, “중국이나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국가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간 핵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봤느냐’는 질문에 “저는 정보 문제, 특히 핵 능력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거론한 국가 간 협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핵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핵무기를 늘려야 할 수 있다는 프라나이 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의 7일 발언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면서 “그것은 수개월이나 수년 내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며 지금 말한 (핵무기 확대) 가능성을 적어도 (옵션) 테이블에 올려놓으라는 전문가 및 초당적인 요구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의 군비 통제 협상과 관련, “중국은 최근 몇 달간 비확산 및 군비 통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우리와 대화하려는 의사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더 높아졌다”면서도 “그 대화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냉전 시대 구소련과 미국이 진행했던 강도 높은 군비 통제 협상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것은 대화의 시작이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추면서 그 길(중국과 군

비 통제 협상)로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 전장에서 변화를 가져왔느냐는 질문에 “하르키우는 여전히 위협 상태에 있지만 러시아는 하르키우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멘텀(러시아 공세의 동력)이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휴전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마스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이를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하마스가 협상안에 ‘예스’라고 할 경우 휴전은 시작되고 인질은 집에 올 수 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최근 인질 구출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것과 관련, “이스라엘이 (희생자) 숫자를 발표했고 하마스측 가자지구 보건부가 다른 숫자를 내놨으며 우리는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민간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조속한 휴전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간헐적 단식’ 창시자 실종 나흘만에 시신 발견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실종됐던 ‘간헐적 단식’ 창시자 마이클 모슬리(67·사진)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콜라우 해변의 건너편 아이아마리나 바닷가에서 모슬리의 시신을 찾았다.

의학박사인 모슬리는 영국 BBC의 ‘민오세요, 난 의사입니다’와 ‘더 원 쇼, ITV의 ‘디스모닝’ 등의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유명인이었다.

그리스 당국자들에 따르면 모슬리는 이날 에게해에 있는 그리스 시미섬의 바위 지대에서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미섬으로 휴가를 떠났던 모슬리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께 ‘아이우 니콜라우’ 해변을 따라 산책하던 모습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시미섬 당국자들과 현지 언론인들이 배를 타고 주변을 살피던 중 아이우니

BBC 과학 다큐멘터리 ‘인간의 얼굴’로 에미상을 받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2012년에는 저서 ‘간헐적 단식법’을 펴내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시총 3조 달러 찍은 엔비디아

젠슨 황, 세계 10대 갑부도 눈앞



인공지능(AI) 반도체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사진)이 세계 10대 갑부 대열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젠슨 황 CEO는 6일 기준 자산이 1천358억달러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loomberg Billionaires Index)에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바로 위에 있는 델 테크놀로지스의 마이클 델 회장(1천72억달러, 12위), 인도 릴라이언스 인터스트리(릴라이언스)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1천93억달러, 11위)과 차이가 크지 않다.

‘투자의 달인’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1천358억달러, 10위)까지

제치면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버핏에 비하면 자산이 약 300억달러 적지만 최근 기세라면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다. 젠슨 황 CEO의 자산은 올해 들어서만 622억달러 증가했다. 자산 증가액 기준으로는 세계 부호들 가운데 단연 1위다.

올해 들어 메타 창업자 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474억달러, 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각각 300억달러 대, 버핏은 160억달러 늘었다.

황 CEO의 자산은 작년 초엔 135억달러(128위)였는데 약 1년 반 동안 약 8배로 불어났다.

전국유세 재개 트럼프, 폭염비상...생수 수천병·가림막텐트 준비

기후변화 위기를 부정해 온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상 고온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주 동안 뉴욕에서 진행된 ‘영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에 발이 묶여 전국을 누비며 유세를 벌이지 못했으나 유죄판결로 재판이 일단락 되면서 다시 유세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모처럼 재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규모 유세 일정이 ‘이상 폭염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진 데 이어 9일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 야외 유세를 갖는 등 본격적으로 남서부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마가(MAGA)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는 통상 행사 시작 수 시간 전부터 긴 줄을 늘어서 대기해야 하며,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야 입장할 수 있다.

피닉스 행사의 경우 행사 자체는 대형 교회 실내에서 개최됐음에도 입장을 기다리던 지지자 상당수가 화씨 110도를 넘는 고온에 탈진 등 증상으로 고통받았고, 11명은 심지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스베이거스 유세 역시 화씨 105도에 이르는 고온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지어 정오 야외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선 캠프의 우려가 한층 크다고 NYT는 전했다.

올해 들어 미국 남서부는 계속되는 때 이른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데스밸리 사막은 최고



치료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로이터]

기온이 화씨 122도를 기록해 1996년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피닉스 역시 종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애리조나와 네바다 일부, 남부 캘리포니아 사막 대부분에는 현재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일단 생수 수천병을 준비하고 공원 곳곳에 태양을 피하기 위한 텐트를 설치해 지지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부랴부랴 세워 놓았다.

텐트 중 일부는 에어킨을 가동하고, 군데군데 물안개를 분사하는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유세동안 더위를 최대한 식힐 방침이다.

보안상의 이유로 유세장에서 우산 소지는 금지돼 왔지만,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해 그늘을 피하기 위한 작은 우산은 허용할 계획이라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사한 기후 문제를 여름 내내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기상청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동안 미국의 기온은 평년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와싱턴 복지상조회

MUTUAL AID ASSOCIATION, INC.(M.A.A)
www.kwmaa.com

와싱턴 복지상조회 창립 24주년기념 감사예배와 제16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6차 정기총회 개최 공고

■ 일 시 : 2024년 6월 15일(토) 오전 11시

■ 장 소 :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다목적실
15451 Route 29, Centreville, VA 20121
(Tel. 703-999-9064)

■ 안 건 : 1) 결산 및 2024 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2) 임원 선출 * 기념품 교환과 선물이 있습니다.

와싱턴 복지상조회 회장 배용웅

여름을 June비하자!

얼리썸머 페스티벌

기간: 5.29.2024 ~ 6.26.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6월 내 설치

CUCKOO



묵을 수록 커지는 혜택! 다시 돌아온 프리미엄 쿠쿠 IH밥솥 증정 프로모션!

렌탈시 다운페이 면제 & 최고급 프리미엄 쿠쿠 밥솥 증정

- 1건** 쿠쿠 소형 블렌더 증정
타사 보상 고객 쿠쿠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 2건** 트윈 프레스서 밥솥 증정
- 3건** 이상 프리미엄 IH 밥솥 증정



일시불 구매 최대 40% 할인



프리미엄 제품 구매 시
20% 할인 + 블렌더 증정

프리미엄 2nd 제품부터
40% 할인 + 트윈 프레스서 밥솥 증정

제품별 할인 가격 다름

베스트 셀러 제품 특별 할인

일시불: 최대 20% 할인
렌탈: 다운페이 면제 & 프리미엄 IH 밥솥 증정
(렌탈 건수에 따라 다름)

해당제품을 인상전 가격으로!



CP-P011G/P011T, CP-MN031BK

Virginia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하이트론즈 Centreville 571-404-4132
건강마을 Centreville 703-712-7116

Maryland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KN501SW, CP-FN601HA, CP-FN601SA, CP-FR601HW, CP-FR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반 제품: CP-ADR05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W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AMERICA IN.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제공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트럼프 유죄’ 에도 조용한 바이든 ‘비호감 대결’ 의 딜레마

이달 초 미국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은 부라부라 5만장의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 위에 ‘중범죄자(Felon)’이라는 글자를 얹은 스티커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거액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추진한 이벤트다. 홈페이지에선 누구든 주소만 기재하면 해당 스티커를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적었다. 무브온 측은 “마침내 트럼프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트럼프의 백악관 임성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도 바이든 캠프는 차분

트럼프에 반대하는 전직 공화당 전략가들의 모임 ‘링컨 프로젝트’ 역시 이 기세를 몰아 트럼프를 더 몰아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죄 판결이 나온 당일부터 “트럼프, 당신은 범죄자”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뿌리고 있다. “이참에 트럼프의 이마에 ‘중범죄자’라는 문신을 새겨야 한다”는 게 제프 터머 링컨 프로젝트 수석 고문의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정작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너

무 차분한 모습이다.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된 지난 몇 주간, 트럼프의 재판 결과가 이번 선거 판도를 바꿀 것이라 전망도 나왔지만, 바이든 캠프에선 그러려는 감개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 한 캠프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재판 이후에도 특별히 선거 전략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전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으로 트럼프가 겪을 고통은 굳이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지 않아도 언론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였다.

심지어 바이든 캠프 내에선 앞으로 트럼프를 두고 ‘범죄자’라는 용어를 쓰지 말지를 놓고도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판결 나왔지만 지난 3일 코네티컷 그리니치의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처음 표현했지만, 그나마도 비공개로 진행된 모금행사에서는였다.

“트럼프 유죄가 바이든의 호재 아냐”

상대 후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선거 공학적으로 봤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등 유죄 바이든 측 “선거전략 변화 없다”

선부른 공격 역풍 부를까 우려 양 진영, 지지층 결집에만 신경

을 때 더 없는 호재다. 그런데도 바이든 캠프가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은 이번 미국 대선이 기록적인 ‘비호감 대결’이기 때문이다.

CNN은 트럼프가 유죄라고 해서 바이든의 불안한 대중적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원인든 무당층이든, 트럼프를 찍겠다



미국 진보 시민단체 ‘무브온’이 무료 배포하고 있는 ‘트럼프는 중범죄자’ 스티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판결이 나오자 제작에 들어갔다. [사진 MoveOn.org]

고 결심한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트럼프를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바이든이 더 싫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어떤 악재가 있다 해도 그 표가 바이든에게 흘러들어오긴 힘들다.

이런 정황은 여론조사 숫자로도 드러난다. 최근 마케트대 로스쿨 여론조사(지난달 6~15일, 미 유권자 1033명)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패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런데도 이들 중 3분의 1은 ‘그래도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런 모순된 결정을 내리게 된 주된 배경은 ‘바이든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90%)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두고 선불리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게 바이든 캠프의 계산이다. 되려 트럼프 지지층만 결집하고, 중도층의 마음도 떠나게 할 수 있다.

“서로의 약점을 가려주는 공생 관계”

트럼프 캠프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민주당원·무당층 가운데 상당수는 바이든이 정말 좋다고 보는 것만은 막아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정한 이들이다. 따라서 바이든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고유명사를 틀리는 등 특검 보고

서의 표현대로 ‘기억력 나쁜 노인’의 모습을 자주 보인다 해도, 바이든에 실망한 표가 트럼프에게 가기는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의 고령 논란, 실패한 물가 정책은 트럼프가 중범죄자라는 사실을 가려주고, 반대로 바이든의 실정은 그가 트럼프라는 악당에 맞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서가 되는 모습이다. 어느 선거였다면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가려주며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일종의 공생 관계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유죄 판결을 두고 바이든 캠프와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메시지도 결국 같은 결론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법원의 기자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재판”이라며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를 몰아낼 방법은 투표뿐”이라며 진짜 승부는 대선임을 강조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초유의 사태인 것은 맞지만,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삼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격을 통해 상대방의 표를 빼앗는 전략보다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로 삼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바이든, TV토론이 기회... 트럼프, 사법위기가 되레 기회”

로비스트들이 본 미국 대선 후보들 바이든, 현직 프리미엄·경제 강점 27일 토론회서 건장한 모습 보여줘야

중앙일보는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DC 종합 컨설팅사 DGA에서 대관(對官) 로비스트로 일하는 샌더 루리 파트너와 존 러셀 파트너를 인터뷰해 미 대선 후보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협(Threat) 등 SWOT 분석을 진행했다. 루리는 데비 스타베나우 상원의원 보좌관 등 민주당·상원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러셀은 데니스 헤스터트 전 하원의장 보좌관 출신으로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선정한 ‘2023년 최고의 로비스트’로 뽑혔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SWOT는. (루리) “바이든의 약점은 지지율이

40% 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 많은 미국인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는 트럼프가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등이다. 바이든의 나이는 그가 4년 임기를 한 번 더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강점으로는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 외관상 좋은 경제 성적표, 트럼프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는 낙태권 이슈 등이다. 오는 27일 첫 TV 토론은 바이든이 건강하고 누군가와 1시간 반 동안 토론할 수 있을 만큼 젊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

(러셀) “트럼프의 가장 큰 강점은 미국인의 단기 기억력이다. 사람들은 4년 전 트럼프 재임 당시 겪은 많은 갈등을 잊은 것 같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금보다 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 수치는 그와 다른데도 말이다. 경제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건 약점 중 하나다. 트럼프의 사법 이슈는 기회가

자 위험 요인이다. 유죄 판결은 트럼프에게 지지층을 뭉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범죄자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비교하면.

(루리)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 유권자의 45%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의 나이가 더 큰 문제다.”

-유권자 표심을 결정할 요인은.

(러셀) “경제와 여성 낙태권 이슈가 중요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낙태권 이슈가 엄청나게 중요해질 거라고 본다.”

(루리) “하마스 싸우는 이스라엘 지원 문제가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며 젊은 층과 유색 인종의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든이 극복해야 할 중요 과제가 됐다.”

-스웽스테인트(경합주) 표심은 어떤가.

(루리) “이번 대선은 2020년 대선 때보다 훨씬 더 박빙 싸움이 될 것이다. 현재 판세만 보면 바이든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대선 승부를 결정지을 6개 경합주 중) 바이든이 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 등 남부 ‘선벨트’를 이기는 것은 힘든 도전이 될 것이다. 바이든은 최소한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3곳과 네브래스카를 이겨야 아슬아슬하게나마 승산이 있다.”

-대선 결과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은.

(러셀)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등 한국의 지출이 자신의 기준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며 협상하려 할 것이다. 또 자신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에 모종의 제의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바이든·트럼프 SWOT분석

바이든	
Strength · 현직 프리미엄 · 낙태권 이슈 선점	Weakness · 낮은 대통령 지지율 · 고령 리스크
Opportunity · 첫 TV 토론 때 고령 문제 불식 가능	Threat · 이스라엘 지원에 청년·유색인종 이탈
트럼프	
Strength · 미국인의 단기 기억력	Weakness · 재임 당시 낮은 경제 성적
Opportunity & Threat · 사법 이슈 (유죄 판결은 지지층 뭉칠 기회이자, 중범죄자 대선후보라는 낙인 가능)	



존 러셀, 샌더 루리



워싱턴 가정상담소

강혜정 박사와 함께 하는 2024 봄 온라인 세미나

Anxiety to Security Transformation



강사 강혜정 Ph.D

-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역임
- 전) 이화여대, 한신대 등
- SMP(The Society of Modern Psychoanalysis) 정신 분석가
- 나무와 새 심리상담연구소 전문가 및 사례지도 감독
- 저서 투사적 동일사: 너를 들어주고 나를 내쉬다
- 공역서 현대정신분석

1강 4월 23일 (화) 오후 7시 30분 너를 들어주고 나를 내쉬다: 투사적 동일사

2강 5월 21일 (화) 오후 7시 30분 늘 은밀히 귀 기울이기: 애착

3강 6월 18일 (화) 오후 7시 30분 헛된 자기복구 시도: 중독

- 장소: Online Zoom Meeting
- 등록비: 무료 (사전 등록 필수)
- 등록 신청 링크: QR Code 첨부
- 문의: 703-761-2225 / counseling@fccgw.org



비대면 실시간 ZOOM (당일전체 이메일로 줌 링크 올리고 초대)

후원: KACF 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 재외동포청 David & Kim Sohn Foundation LLOYD A. FRY FOUNDATION Jurie Foundation

워싱턴 가정상담소 1952 Gallows Rd. #210, Vienna, VA 22182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법사위 정청래·과방위 최민희... 11개 상임위원장 오늘 선출 강행

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
"탄핵안·특검법 속전속결 처리할 것"
상임위원별 국조·청문회도 추진 태세
여당,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검토



22대 국회가 법제사법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결정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다. 법사위(정청래·4선), 교육위(김영호·3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최민희·재선), 행정안전위(신정훈·3선), 문화체육관광위(전재수·3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여기구·3선), 보건복지위(박주민·3선), 환경노동위(안호영·3선), 국

토교통위(맹성규·3선), 운영위(박찬대·3선), 예산결산특별위(박정·3선) 등 11곳에 대해선 위원장 후보 명단도 함께 냈다. 이를 놓고 "친명 강경파가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사위원장 후보에 내정된 정청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과방위원장 시절 방송 3법을 주도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런 만큼 각 상임위의 '상원' 격인 법사위가 야당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중

탄핵안과 특검 법안 등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원장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최근 1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방송 분야 입법 드라이브를 세계 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카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운영위에선 채 상

더불어민주당 제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법사위원장	정청래 (4선·서울 마포출)
교육위원장	김영호 (3선·서울 서대문출)
과방위원장	최민희 (재선·경기 남양주출)
행안위원장	신정훈 (3선·전남 나주·화순)
문체위원장	전재수 (3선·부산 북출)
농해수위원장	여기구 (3선·충남 당진)
복지위원장	박주민 (3선·서울 은평출)
한노위원장	안호영 (3선·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토위원장	맹성규 (3선·인천 남동출)
운영위원장	박찬대 (3선·인천 연수출)
예결위원장	박정 (3선·경기 파주출)

병 사건 등에 대한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버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 청문회,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적극 활용하겠다"(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상임위 의결로 가

능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가령 수사 검사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다 증인으로 불러서 '왜 수사를 지연시키느냐'는 것도 물을 수 있다. 상임위 의결을 했는데도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이를 피하면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당내에선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거친 정 의원이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또다시 겸직하는 걸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직이나 장관 이상 고위 정부직과 원내대표를 지낸 경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야당 중진의원은 "그때 1년만 상임위원장을 하고 내려왔던 의원들은 말은 안 해도 부글댄다. 너무 기준이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민주당·조국당, 슬금슬금 틈 벌어지나 개딸, 조국 공격... 조국, 이화영에 침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조국혁신당 이사를 겸직 공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관례는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대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공범으로 입건된 이 대표 기소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추진해 실체를 밝혀달라"고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한 배를 타다시피 했던 조국당은 조용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본격 추진하고 협조를 요청하

면 그때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다만 '이화영 재판'은 당과 연관된 사안이 아니라 따로 논평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당이 검찰 권한 축소에는 적극 나서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대표를 너무 방어하면 '방탄 2중대' 이미지가 짙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뒀

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국당이 국회 화장실 앞에, 복도를 사이에 두고 사무실(223·224호)이 배정된 것을 놓고 "어떻게 화장실 앞을 주냐"(조국 대표), "김밥 양 끄트머리만 모은 것과 마찬가지로"(황윤하 원내대표) 등의 불만을 표시하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화장

실과 싸우는 조국" "너무 찌꺼(자잘해)요" 등 조롱성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에선 "이 대표는 대표실을 화장실 앞 소동자한테 양보하고, 화장실 앞을 쓰라고 해도 기꺼이 그러실 분"이라는 글과 "(조 대표가) 뺏속까지 엘리트라 그렇다" 등 동조 댓글이 달렸다. 이곳은 총선 전에 회원들에게 '조국 언급 금지령'을 내렸던 곳이다. **김정재·정용환 기자**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이번엔 출석정지 중 자전거 훔쳤다가 덜미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개XX'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수차례 때린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출석 정지(등교 중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신고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때렸고, 세끼를 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A군 어머니가 학대한 정황이지만, A군 발언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7시 57분쯤 한 주민이 "도난 사건이 있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고 전해 듣고, 이날 전주시 완산구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 일행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7분 5초짜리 영상엔 야구 모자와 반팔 차림의 A군이 신고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고자가 "자전거 네 거 아니잖아"라고 말하자 A군은 "엄마가 사주셨다. 내 거라니까"라고 발끈했다. 촬영이 계속되자 A군은 "불법 촬영을 하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신고자가 A군 앞을 가로막자 "억울해요. 상관하지 말고 가주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신고자가 "학교는 어디 다니냐"고 묻자 A군은 엉뚱한 초등학교 이름을 대며 "OOO(본인 이름) 보셨냐"고 되물었다. 신고자가 "너야, 다른 사람이야?"라고 다시 확인하자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A군을 만나면) '왜 잘못을 했다. 선생님 뺨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해주려고 한다"고

했다.

신고자가 "뺨은 먹었냐.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묻자, A군은 처음엔 "먹었다. 엄마는 집에 있다. 백화점에서 영화도 보고, 쇼핑해야 한다"고 했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납치하시는 거 아니죠? 밥은 사주실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바꿨다.

"오늘 아침·점심·저녁은 먹었냐"고 묻는 말에 A군은 "안 먹었다"며 "엄마가 잘 때렸다. 아동학대를 하고, 저한테 욕하고"라고 했다. 신고자가 A군 얼굴 왼쪽 광대에 멍이 든 것을 가리키며 "엄마가 왜 때렸냐"고 묻자 "편식하니까"라고 답했다. "뒤편 때렸냐"는 물음엔 "약간 뺨쪽한 거. 나무 색깔로 된 거"라고 말했다.

영상은 경찰관이 도착하면서 끝난다. A군은 경찰관에게 "이거(자전거) 저희 거예요. 진짜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라고 주장했다.

A군은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이어서 이날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어머니에게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 관련 자전거 도난 신고가 접수된 건 맞지만,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현재 학교로 전학



A군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민에게 덜미를 잡힌 모습. [사진=전북미래교육신문]

은 A군은 지난 3일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야"를 연발하며 뺨 다섯 대를 때린 뒤 달아났다.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 담임 교사에게 항의하며 팔뚝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출석 정지 10일'을 받은 A군은 오는 25일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다. A군은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 4년간(지난해 유급)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 따른 강제전학 두 번을 포함해 7개 학교를 전전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A군 어머니는 학교 측에 "아들이 100% 잘못된 게 아니다"라며 "교감과 담임도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아들을 때렸고, '부당하면 너도 한번 때려'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L&C UNIVERSAL GOLF

Leader in the World of Golf Instruction

NEW

센터빌에서 그랜드 RE-오픈!!

골프 열기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L&C Universal Golf 실내 골프장으로 오세요.

골프 아카데미 스쿨

- 일반인 레슨, 교정
- 슬라이스,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 전문 교습
- 철저한 1:1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아이언샷, 퍼팅 강습

- 주니어 연습생 레슨
- 회원 스크린 영상 서비스
- 하루 1시간, 3개월 후 변화

센터빌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넣은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를 추천합니다"



정미란 안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 소아안과학회 (KAPOS) 정회원
한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KSCRS) 정회원
미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ASCRS) 정회원
미국 안과학회(AAO) 정회원

은행잎 추출물

자색 고구마

비타민 A

루테인

마키베리 추출물

포도씨 추출물

제아잔틴

빌베리 추출물

온가족 눈 건강 지킴이

아이클리어(정) 120 Tablets | Net WT. 0.9 oz (25.2g)

- 개별 PTP 포장**
- 산소와 열로부터 보호
 - 위생적인 개별포장
 - 간편한 휴대성

소중한 눈도 믿을 수 있는 우메켄에서 지켜드립니다

- ✔ 눈 노화, 안구 건조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최적의 보충제
-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눈 노화 집중 케어를 원하는 시니어까지

눈 건강 개선 특수 성분 8가지 함유

- 루테인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자색고구마 분말 • 은행잎 추출물 • 비타민 A

출시 기념 행사

아이클리어 구매 시 씨밸런스(\$39) 무료 증정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일상생활에서 침침한 눈으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스마트폰, TV, 컴퓨터 장시간 사용 하시는 분
- 노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으로 황반변성 위험도가 있는 분
- 사물을 바라볼 때 편안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분
- 안구건조증 및 눈 노화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전면휴진 결의하고... 요구사항은 “논의중”이라는 서울의대

서울대병원에 이어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휴진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의 오는 17일 휴진 다음 날인 18일로 잡았다고 한다. 집단 휴진은 2000, 2014,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다. 휴진 결의로만 따지면 일곱 번째다. 이번 집단 휴진은 시점·내용 면에서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우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덕수 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투쟁선보문에서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간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지만 의대 증원 중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의 전면 휴진 이유도 흐릿하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가 아니라 취소를 요구한다. 철회와 취소에 차이가 있긴 하다. 진료 현장 복귀자는 행정처분 취소와 다름없게 되지만 미복귀자는 모호하다. 미복귀자 처리 방향은 정부 내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미복귀자는 사직 후 개업·취직·입대 등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이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 6일 보도 자료에서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강경희 비대위원장은 9일 “그 조치에 ‘의대증원 백지화’가 포함되느냐”는 중앙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 정도 상황이 서울의대 비대위가 휴진할 사안인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교수회 “파업하면 모든 개혁 수포”
서울대 교수회가 나섰다. 교수회는 9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왼쪽)과 참석자들이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임현택 의협 회장(왼쪽)과 참석자들이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뉴스시스]

일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키며 의료 시스템과 교육 개혁에 매진합시다’라는 제목의 집단 휴진 반대 입장문을 냈다. 교수회는 “의료 시스템과 교육·임시 체계를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하고, 환자가 피해 볼 수 있는 집단 휴진은 재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임정목(농생명공학부) 서울대 교수 회장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의료와 교육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논의할 시간이다. 파업이라는 게 생기면 지금 이야기했던 (의료나 교육 개혁) 모든 걸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파업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정부도 전공의의 돌아오게 해야 하니 이런 문제를 포함해 각자의 역할을 제자리에서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부가 들고나온 게 의대 증원인데, 여기에 모든 문제가 매몰됐다”며 “이제 내년 의대 증원이 정해졌으니 부작용에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갑자기 파업 문제가 대두되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의협의 집단 휴진 참여율이 10% 안팎으로 저조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파업 결의에 개업의·전공의·봉직

“증원 백지화 포함되냐” 묻자 답 못해 휴진할 사안인지 납득 쉽지 않아
서울대 교수회도 “의료현장 지켜야”

의협은 서울대 휴진 다음날 휴진 내년 의대증원 사실상 결정난데다 전공의 면허정지 불확실한데 강행



와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월급쟁이 의사)·대학교수 등이 두루 참여해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 40개의 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과거 같은 “엄정 대응”이라고 강하게 나왔을 테지만 아직은 낮은 톤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이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의료법 처벌이 대두될 전망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무얼 얻으려는 파업인지 모르겠다”
휴진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특하면 파업을 들고나오는데, 실제 파업의 영향력이 있던 적이 있느냐”라며 “무엇을 얻으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개업의사가 파업을 해도 환자에게 크게 영향이 없으니 무대응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빨

리 상황을 수습하고 의료정책의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속도를 내야 할 때 의료계의 집단 휴진 얘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개원의든 대학병원이든 집단 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개원의들의 휴진은 장기화하기 어렵고 영향도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서울대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집단 휴진을 하면 환자들의 생명을 불모로 하는 것만 같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들은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의협 간부와 불법 파업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양측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어떻게든 정부는 1509명 증원의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그러면 사회를 조용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복귀하면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치적 빈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야 한다”면서 “의료계도 파업 계획을 접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대안 있는 세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장주영·남수현 기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의협회장, 의사 유죄 선고한 판사 저격

SNS에 고법 판사 사진까지 공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겨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

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징역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또 과거 윤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

란다”고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부작용으

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약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의원을 찾았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약약품으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

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 측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탐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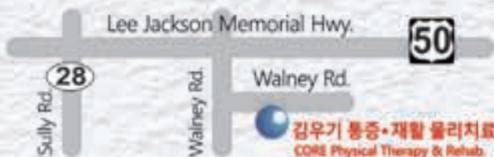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정부 “추가 방송여부, 북에 달려” ... 북한 또 풍선살포 맞대응

정부가 9일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예고한 대로 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면서도 동시에 신중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강대 강대치 국면이 초래할 수 있는 한반도 긴장 국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선 이유는 이번 오물풍선 살포로 실제 재물 손괴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밤 대량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것을 시작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미사일 카드를 번갈아 꺼내들면서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 예행연습’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오물풍선과 GPS 교란은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통상적인 군사 도발과는 달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정부 안팎에서 있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방조할 경우 다음엔 무엇을 넣어 보낼지 모른다”며 “북한이 이미 정부가 정한 기준선을 넘어섰고, 행동으로 악순환을 끊을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이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례성 원칙’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 방침을 결정하면서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살라미 전술’인 셈이다.

실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확성기 방송을 2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추가

확성기 재개 이후 정부 대응 주목
잇단 오물풍선에 국민 일상 피해
정부 “행동으로 악순환 끊을 시점”
비례성 원칙 고민, 세부 지침 정해

5월 27일	오후 10시44분쯤 군사정찰위성 실은 발사체 발사. 발사 약 2분 뒤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
28일	오후 9시쯤부터 오물, 쓰레기 등 담은 오물풍선 남한으로 대량 살포
29일	새벽부터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 오전까지 지속
30일	오전 6시44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 발사
30일	오전 7시50분쯤부터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 공격
31일	오전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 공격 지속
6월 1일	오후 8시쯤부터 오물풍선 추가 살포. 서울·경기·충청·경북 등지서 720여 개 발견 및 닷새째 GPS 전파 교란 공격
8일	오전 10시까지 오물풍선 3300여 개 추가 살포. 우리 지역에 낙하 800여 개 대북 확성기 재개 뒤 오물풍선 또 살포

자료: 합동참모본부, 북 조선중앙통신

방송 여부는 북한의 대응에 달려다는 단서를 달았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확성기를 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고정형 확성기를 설치한 뒤 방송 송출은 하지 않은 적도 있다. 공을 다시 북한에 넘기면서 국면 전환의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로 읽힌다.

남북관계 상황이 과거 확성기 방송 재개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점도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정부

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시작된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확성기를 향한 포격으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까지 치닫다 대화가 재개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유감 표명과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선포한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와 같은 ‘타협’ 또는 ‘봉합’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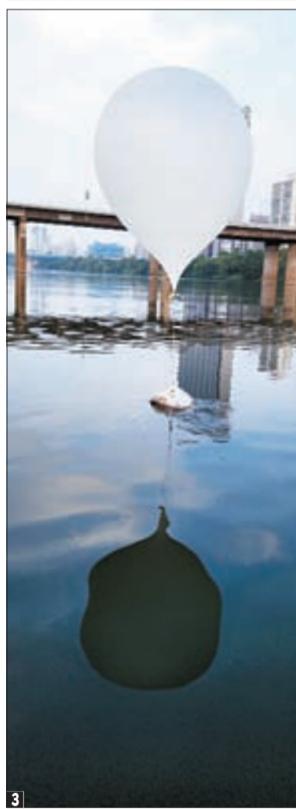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해상 국경선은 무력행사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이어 재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언급한 만큼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북한은 강은 전략을 반복하는 대남전술을 썼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적대적 교전국인 남한과) 타협하기보다는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을 미칠 사실상 유일무이한 카드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날 확성기 방송 재개 발표 이후 한밤중에 오물풍선을 또다시 살포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군 관계자는 “확성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심리전 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윤 대통령, 오늘부터 중앙아 3국 순방... K-실�크로드 구상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5박 7일 일정, 6개월 만에 국빈 방문

윤석열(열골) 대통령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5박 7일 일정이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의 해외 순방으로,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지로 중앙아시아를 선택한 것은 핵심 자원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하며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인 ‘K-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번 순방 대상 3개국은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다. 윤 대통령이 10~11일 방문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너지 플랫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선, 보건·의료, 교육과 교통 인프라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10일), 비즈니스 포럼(11일) 등을 소화한다.

카자흐스탄(11~13일 국빈 방문)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원소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있다고 할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우즈베키스탄(13~15일 국빈

방문) 역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관련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뿐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 회담을 갖고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현일훈 기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하이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삼성폰 세계 1위” 뉴스 뒤 BTS 노래... 북 향해 ‘자유’ 틀었다



▶ 1면 ‘확성기’에서 이어집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9일 밤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빠라(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철거 당시 고정형 확성기는 총 24개였으며, 2.5t 군용 트럭에 실어 운용하는 이동형(기동형) 확성기도 16대가 있다. 이날 오후 5시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된 방송은 군이 제작한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청취 거리가 10~30km 수준인 고효율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첫 방송 뉴스코너에서는 아나운서가 9·19 군사합의 전후 효력 정지에 대한 국방부 정책실장의 육성 발표, 한·미·일의 북한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력 규탄 소식,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 전 세계 1위 소식 등을 전했다. 30분가량의 뉴스 코너가 끝난 후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중간 중간 가수 방탄소년단의 봄날·버터·다이너마이트와 불빨간 사춘기의 히트곡 등이 나가기도 했다. 앞서 군은 지난주 전방 지역에서 대북 방송 재개를 위한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합참은 “최근 확성기 이동과 설치, 운용 절차 숙달 등 일명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예고대로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는 건 북한이 8일 밤부터 오물풍선을 재차 살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8일 밤 11시부터 9일 오전까지 폐지, 비닐 등 오물이 담긴 풍선 330여 개를 내려보냈다. 지난달 28~29일 1차(260여 개), 이달 1~2일 2차(720여 개)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은 정부의 확성기 방송 재개 발표 이

후에도 계속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또 북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반발이 예상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간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이라는 점과 실제 방송 재개 시 반발한 전례로 볼 때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도 우발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전군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NSC 직후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었다. 신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 시행에 따른 지휘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들 발미로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일윤·이근평·이유정 기자

옛세만에 오물풍선, 수도권 깜짝 서울 시민들 “대책 좀 세워달라”

“북 맘만 먹으면 어디든 살포... 무서워”
접경지역선 “남북 풍선살포 멈춰야”

옛세만에 다시 날아온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다시 놀랐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 시민들은 “대북 풍선을 막아야 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의 지난달 13일 대북전단 살포를 발미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풍선 1000여 개를 남측으로 날려보냈다. 이후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다시 대북전단이 온다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어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난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 20만 장을 배달하 북한으로 보냈고, 또 다시 대남 오물풍선이 날아온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8~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다.

서울 시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오물도 오물이지만, 북한이 맘만 먹으면 서

울 시내 어느 곳이든 뭔가를 살포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고 했다. B씨는 “서울까지 넘어오는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지 답답하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접경지역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민통선 내 횡산리 마을 김학용 전 이장은 “남북한 풍선 대처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남북 간 충돌 시 접경지역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남북이 풍선 살포 대처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북·중·러, 핵무기 빠르게 확충... 미국도 동맹보호 위해 더 많은 핵 필요”

바다 백악관 NSC 군축 선임보좌관 “바이든, 핵무기 새 운용지침 마련”
러 “미국 따라 대응”... 신경전 격화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자국 무기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마러간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 간에 핵 교리 수정 또는 핵무기 확산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프라이아 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

임보좌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군비통제 협회 연례회의에서 “러시아·중국·북한은 핵무기를 위협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충하고 다변화하면서 군비 통제에 관심이 적거나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안보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보다 ‘경쟁력 있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바다 선임보좌관은 “경쟁력 있는 접근” 방식의 예로 두 가지를 들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핵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핵무기 운용지

침(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을 내놓은 것과 기존 B83 중력탄을 대체할 B61-13 중력탄 개발과 특정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수명을 연장한 것이다. 그는 “이런 조치가 핵무기 전체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접근 방식이 아닌 ‘더 나은’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바다 선임보좌관은 “분명한 것은 적국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몇 년 뒤 현재 배치된 핵무

기 숫자를 늘려야 할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것은 적대국들을 저지하고 미국 국민과 동맹·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심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본회의에서 “핵무기 사용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그런 경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핵 교리는 살아있는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교리 수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다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8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미국이 핵무기 배치 수를 늘릴 경우 러시아도 핵 교리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리는 어느 누구와의 대화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미국이 협상을 거부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협상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싱턴=김형구 특파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할 수 있을 것이다’ 투는 불편하다

아는 사람이 책을 냈다. 그는 책에서 ‘것이다’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어쩌어쩌 하다 공직 생활을 조금 했는데, 공문서들에서 ‘것이다’가 특히 많이 보였고,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것이다’는 문장에서 몇 가지 기능을 한다. ‘담배는 해로운 것이다.’ ‘담배는 해롭다’를 이렇게 쓰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것이다’는 강조하면서 설명한다.

다음 같은 문장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이다.” ‘것이다’가 있어 왜 울었는지가 선명하다. 그렇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울었다”처럼 썼다. 뭐가 더 나을까. 그런 건 없다.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르다. 선택은 자유다.

“아픔은 다 잊었을 것이다.” 이 문장은 짐작이고 예상이다. ‘것이다’는 ‘추측’을 나타낼 때도 흔하게 쓰인다. ‘것이다’가 들어간 이런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픔은 다 잊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다.

“다수결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로 하면 된다.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로 늘리면 문장의 힘이 떨어진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의 ‘것이다’도 군더더기다.

한규희 기자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핵보유국 북한, 한국의 대응은?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여정은 오물 풍선 도발을 표현의 자유라고 억지 주장을 했는데, 주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보내는 군사적 행동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며 유엔사는 오물 풍선 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러시아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 적인” 폐기(CVID)를 목표로 해온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에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1970년 발효된 핵비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존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러시아 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28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도발에 대한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임기연장에 반대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 사례를 조사하는 제도를 무력화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제재의 근거확보 절차가 없어져 결의안은 발의 자체가 어렵게 된다.

북한 핵개발은 미·소 냉전시절 러시아와 중국의 암묵적인 지원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걸로는 미국이 유엔에서 주도하는 대북제재에는 동참해 왔다.

이런 표리부동한 자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 이상 감출수 없게 된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발해 유엔의 제재대상국이 된 데다, 전쟁으로 무기가 고갈되자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포탄 지원을 받았다.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을 제재할 여지마저 없게 됐다.

핵무기는 어느 나라든 일단 보유하면 폐기하기 어려운 무기다. 경제체제로 폐기시킬 수 있는 것은 개방경제 체제 국가를 상대로 할 때 기대할 수 있을 뿐, 북한 같은 폐쇄사회에선 통하지 않는다.

더욱이 북한은 동맹관계인 중국과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어 유엔의 제재를 빠져나갈 구멍이 열려 있다.

핵보유국이 되면 그 핵무기의 공격 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문제가 당연히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는 두 나라의 핵관련 기술력이나 핵물질 보유량,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보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핵보유는 1차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행위로 여겨, 핵도미노의 우려를 명분으로 삼아 극렬

히 반대 할 것이다.

한·일의 핵개발은 5대 핵보유국들이 누려온 특권적 지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신 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5대 보유국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 것이다.

두 나라는 무역에 의존한 경제 구조여서, 특히 서방진영으로부터 경제제재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미국이 중·러의 반발을 무력화하면서 취할 수 있는 카드는 한·일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면서 미군 철수카드를 내미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이런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선 후 철회한 적이 있다.

올해 대선에서 그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그 같은 카드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에게 이는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 주둔비용 증액으로, 중국과 러시아엔 대북핵포기 압박용으로 양수점장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핵협상이 재개되어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가 논의 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동북아의 긴장완화나 전쟁위험 감소 대화가 사실상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나 중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러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성공하는 상황에 대비한 Plan B도 필요하다.

이 경우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물질 재처리 능력과 호주 수준의 핵잠수함 관련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요구된다.

아메리카 편지

역사와 복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기본소득은 인공지능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하며 그동안 주장해 온 복지정책을 새삼 언급했다.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토머스 모어의 1516년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했다.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일정량을 지급해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부 복지정책이다. 이 대표가 최근에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여기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기본소득을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운 이상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다. 현재 보편

적 기본소득을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영국·캐나다·브라질, 그리고 유럽 일부 곳곳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약 90개의 나라·지역에서 일시 불로 지급한 비상자금의 긍정적인 효과에 힘을 얻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2021년 뉴욕시장 후보였던 앤드루 양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도 그 한 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시민 3분의 1이 직업을 잃을 것

에 대비해 한 달에 1000달러씩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자는 급진적 제안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은 보통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와 비슷한 정책이 고대 로마시대 때 시행된 바 있다. 독재 정치의 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BC 46년 개선식에서 모든 로마시민에게 100은전(denarii)을 지급했고, 유서에 따라 또 75은전을 나눠줬다.

여러 복지 정치로 유명한 트라야누스 황제도 650은전을 신청하는 모든 시민에게 지급했다. 시대상 변화는 정책의 변화를 초래한다. 문제는 그 부작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느냐는 데 있는 것 같다. 김승중 고교학자·토론토대 교수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열린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 상담**



**롱 텀 케어
서비스**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양로원에 들어가실 분들과 나오실 분들께
그룹 홈이나 양로 호텔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니어 부부는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VIRGINIA OPEN
HEALTH CARE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대표 김종훈

**문의 및
안내**

Doug Ko, PMP, Director of Healthcar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s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이동찬
이민/비자 변호사

Q 학사학위를 통해 3순위 숙련공으로

▶문=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도매상에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대신 전문직 또는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음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판매 쪽은 1년 정도의 경력만 있습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는 취업조건에 따라 비숙련직, 숙련직, 전문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경력이 요구되고, 숙련직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 전문직은 최소 학사학위가 요구됩니다.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비숙련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0년 10월까지 밀려 있고 숙련직과 전문직은 영주권 문호가 2022년 11월까지 밀려 있습니다.

학위 또는 경력이 전혀 없어도 비숙련직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비숙련직 영주권 신청자가 숙련직 또는 전문직 영주권 신청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문호 또한 비숙련직이 숙련직과 전문직보다 더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변수가 없다고 가정할 때 Visa Bulletin 도표만 본다면 전문직과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비숙련직보다 2년 정도 빠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비숙련직보다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하의 경우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매업 판매 슈퍼바이저는 보통 학사학위와 4년의 경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숙련직이 요구하는 2년의 경력은 없지만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연관이 없어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그 학위를 이용하여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이민국은 전공분야와 관련없는 학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해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과 입장을 달리하여 별도의 2년 경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Visa Bulletin에 국무부는 이민 비자 신청자가 많아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가 7월부터 후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7월에 2순위와 3순위 문호가 후퇴를 하면 2025년 회계연도인 10월부터 다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나김
교육/대학입시 전문

Q 살짝 높아진 하버드대 일드율

▶문= 2024년 가을학기 하버드대의 일드율(yield rate)이 발표됐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답= 일드율은 대학입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합격생 중 실제로 등록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하버드대는 올가을학기 합격생 중 84% 이상이 등록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가을학기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올가을학기 총 5만 4008명이 신입생으로 하버드에 지원해 1937명(3.59%)이 합격했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5.15% 감소했다.

올해 전국 대학가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 확산, 하버드 및 유엔 총장 사퇴 등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버드대의 일드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하버드대의 명성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하버드대는 올가을학기 일드율이 1970년대 이후 가장 높게 나온 일드율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버드대 역사상 가장 높은 일드율은 2011년 가을학기 합격생들로부터 나온 85%였다.

대학들은 일드율을 매우 중요시한다. 일드율이 높을수록 합격생들의 가정으로부터 거둬들이는 학비*수수료 수입

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에서 절대적인 보탬이 된다. 높은 일드율은 학교의 명성과도 직결된다. 하버드대처럼 일드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명성이 높다. 스탠포드대, 프린스턴대, 유엔, MIT, 시카고대 등 탑 대학들은 높은 일드율을 자랑한다.

일드율이 높은 대학일수록 많은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일드율은 대학 랭킹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일드율이 낮은 대학들은 대체로 합격률이 높다. 등록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을 합격시킬 수밖에 없다.

대학들은 일드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수준 높은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우수학생들을 초대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하게 하는 플라이인(fly-in) 프로그램 등은 일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입시 과정에서 많이 알려진 조기전형 방식인 얼리 디지션(ED)이나 얼리 액션(EA)도 일드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특히 ED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합격하면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일드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 역할을 한다. ED로 지원하면 대체로 정시 지원(RD)보다 합격률이 1.6배 정도 오른다.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Q USCIS의 동성 커플 I-130 신청 거절 소송제기

▶문= Bristow v. Mayorkas, 3/28/24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는가?

▶답= Felixberto Tinga Villamil (남성)은 1999년 필리핀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카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01년 Marilyn Pass (여성)와 결혼했으나 USCIS의 의심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에는 Cecilia Ruiz Poyaoan (여성)과 결혼했으나, 12년후 Gay 커밍아웃 이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Mark Bristow(남성)와 결혼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의 I-130 신청을 거부하며 Villamil의 이민 혜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문= 이민국 USCIS의 I-130 신청서 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USCIS는 I-130 신청서를 심의할 때, 결혼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민 혜택을 희망하는 외국인과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약 이전의 결혼이 가짜 결혼으로 확인되거나 이민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USCIS는

해당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 Mark Bristow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USCIS는 Villamil의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판단하여 Bristow와의 결혼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Bristow는 USCIS의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USCIS는 Bristow와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라고 인정 하였다가 과거 결혼이 가짜 결혼이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Bristow

는 이민국의 결정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이를 무효화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문=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

▶답= 법원은 USCIS의 검토 및 분석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추가 검토를 위해 USCIS로 다시 송부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승인되었고 피고의 청구서는 거부되었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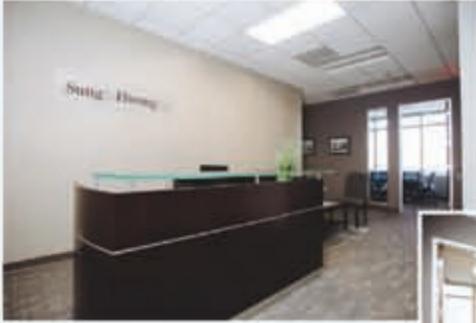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June 10,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젠슨 황



AI의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애플 넘어 증시황제 넘본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에 거침이 없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기며 애플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몸값이 비싼 기업에 올라섰다.
지난 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5.16% 오른 1224.4달러(약 168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시가총액은 3조110억 달러(약 4134조원)를 기록하며 3조 달러 선을 돌파했다. 지금까지 시총 3조 달러에 도달한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엔비디아가 세 번째다. 이날 엔비디아 시총 순위는 애플을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시총 1위 MS(3조1510억 달러)와의 격차도 1400억 달러로 줄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이 회사의 시총은 지난해 6월 1조 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 2월 2조 달러, 이번에 다시 4개월 만에 3조 달러를

돌파했다. AI 전용칩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선보이고 있고, 이는 주가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엔비디아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1분기 매출액은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169억 달러(약 23조2000억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2.1%, 영업이익은 무려 8배나 늘었다.
AI서 뒤처진 애플, 시총 3위 굴욕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조치도 이날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액면가를 10분의 1로 낮추고 주식 수를 10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주식 분할은 투자자의 심리적 장벽을 낮춰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눈이 높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여기

에 주식 분할 조치가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며 투자 접근성을 높인 게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제품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4'를 앞두고 차세대 AI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새로운 AI 칩 '블랙웰' 출시로 드램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신제품 계획을 내놨다.
S&P500-나스닥, 최고가 또 경신
시장에서 보는 엔비디아 주가 전망도 밝다. 미국 씨티그룹의 스튜어트 카이저는 "엔비디아는 AI 산업에서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극소수의 회사 중 하나"라며 "주식이 오를수록 위험도가 커질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까지 꽤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2030년 시총 1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기술주 전문 운용사인 I/O펀드의 베스 킨디그 수석기술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이미 최고 사양 GPU를 보유한 데 이어 올해 말 신제품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블랙웰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자동차 시장에 널리 쓰이며 또다시 엄청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엔비디아가 AI 전용칩 분야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경쟁업체보다 기술 수준이 한 단계 앞선다"며 "당분간 경쟁업체가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2011년 말 시총 1위에 오른 애플은 지난 1월 2년여 만에 MS에 1위 자리를 넘겨준 데 이어, 5개월 만에 2위 자리에서도 밀려나는 굴욕을 맛봤다.
▶ 4면 '엔비디아'로 이어집니다 하남현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노승훈 Robinson S. Rown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한미 504
703-887-1037
www.rowepllc.com

대박 노리면 한국 부호들 '사라진 억만장자' 될 수 있다

(Missing Billionaires)

LTCM 펀드매니저 빅터 하가니

한국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미국 헤지펀드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이 파산위기를 맞았다. 방아쇠는 러시아 부도사태(모라토리엄)였다. LTCM 위기는 글로벌 시장엔 건디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당시 연방준비은행(Fed)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지휘 아래 대형 시중은행이 구조에 나섰다. 금융위기 역사가 에드워드 쉐슬러가 말한 "고수익을 자랑하던 LTCM 사가(saga, 전설)의 결말"이다.

LTCM 사가는 흥미진진한 소재로 가득하다. 첨단 기법과 월가의 실세 자금, 특혜성 규제금융 등은 훌륭한 금융 논픽션을 탄생시켰다. 대표적인 책이 바로 『천재들의 실패』다. 지은이 로저 로웬스타인은 "언론은 LTCM 내에서 빅터 하가니의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며 "(노벨상 수상자 등 화려한 멤버들보다) 하가니가 핵심 플레이어였다"고 했다. 이런 하가니를 중앙일보가 국내 언론으로서 처음으로 인터뷰했다.

하가니는 LTCM 사태를 다룬 논픽션 때문인지 '천재적 악마' 이미지로 채색돼 있다. 그 바람에 화상 인터뷰 앱 연결 과정에서 버퍼링이 일어나는 동안 왠지 그의 말투는 냉랭하고 인상은 간간할 것이라 선입견이 들었다. 하지만 "헬로!"를 외치는 그의 첫 음성은 밝았다. 화면 속 얼굴은 이웃집 아저씨 느낌이었다. 그의 영어에서 걸끄 지역 악센트가 느껴졌다. 인터뷰 명분은 그의 생애 첫 책인 『사라진 억만장자들(Missing Billionaires)』 소개였다. 하지만 LTCM 사태 이야기가 더 길었다. **사태 직후 1년 더 뒷수습 매달려**
-LTCM 위기 직후 삶은 어땠는가.



빅터 하가니 전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LTCM) 창업 파트너는 30대에 현란한 수확을 바탕으로 한 고위험 머니게임을 벌여 '천재적 악마'로 불리기도 했다. [사진 엘름엘스]

현란한 모델로 고위험 돈놀이
1998년 러 부도로 벼랑에 몰려
10년 트라우마 시달리다 재기
이젠 지루할 정도로 단순 투자

"LTCM 위기 당시 내 나이 30대였는데, 아이가 셋이었다. 우리 가족에게도 고통이었다. 위기가 1998년 발생했는데, 나는 1999년까지 LTCM에서 일해야 했다. 14개 은행이 LTCM 자산을 넘겨받고 있었다. 이들 은행을 대신해 나는 청산 절차가 질서정연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

었다."
-파트너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비판이 있던데.
"늘 투자자의 편에서 일 처리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때 LTCM 사태가 더 나빠질 수 있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가니가 말한 "청산 절차가 질서정연하게 이뤄지도록"이란 표현은 금융 시장과 이론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LTCM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쉐슬러는 지난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헤지펀드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규제금융은 제공되지 않았다"며 "반면에 LTCM 사태가 시작되

자 Fed에 등이 떠밀린 시중은행들이 LTCM 자산을 사주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때 그린스펀과 LTCM 파트너 데이비드 멀린스와의 관계가 주목받았다. "월가 안팎에서 Fed 부의장 출신인 멀린스를 구하기 위해 그린스펀이 월가 은행을 움직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쉐슬러는 전했다. LTCM에 주입된 미 은행들의 규제금융은 40억 달러(약 5조4400억원) 정도였다.

"LTCM과 180도 다른 투자"
-LTCM 비극 이후 트라우마(외상 후 증후군) 같은 것은 겪지 않았는가.
"자동차 사고를 겪은 뒤 거의 모든 사람은 운전하길 두려워한다. 운전하고 싶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LTCM 사태를 겪은 뒤 10여 년이 흐른 뒤에야 자산운용사 엘름엘스를 창업했다."
-공백이 짧지 않았다. 그만큼 상처가 깊어서인가.
"엘름의 투자 철학과 전략이 LTCM에서 우리가 했던 것과 180도 다르다. 엘름은 헤지펀드가 아니다. 주로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다. 마켓 비팅(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 거두기)도 하지 않는다. 투자자에게(LTCM만큼) 많은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 투자금을 불리지도 않는다. 위기 순간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사태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다. 레버리지를 하면 추가 등이 떨어질 때 보유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자산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LTCM이 위기에 빠진 이유다."
위험하고 현란한 게임을 펼쳐본 하가니가 이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못해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투자 전략과 기술을 외치고 있다. 현란한 컴퓨터 게임

에 시들해진 게이머가 아주 단순한 테트리스 매력을 이야기하는 모양새다. 이어지는 그의 투자 조언도 비슷했다.

"패밀리 오피스는 고비용"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지 60여 년이 됐다. 기업 규모가 거대해지고 수많은 억만장자가 탄생했다. 이들이 19세기 미국 철도왕인 앤더빌트 가문 후손처럼 사라진 억만장자가 되지 않고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물려받은 가업에 집중하기보다) 분산투자하고 기대수익을 낮게 유지하라!'는 메시지다. 어떤 억만장자가 3년마다 재산을 세 배로 불리는 게 목표라면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다."
-요즘 한국 부호들이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명을 피하기 위해 가문 자산운용사인 '패밀리 오피스(FO)'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패밀리 오피스가 억만장자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까.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꽤 든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패밀리 오피스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된 분산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자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강남규 국제경제 선임기자
◆빅터 하가니=1962년 뉴욕에서 이란 출신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채권전문 투자은행 샐러먼브러더스를 거쳐 LTCM 창업에 참여했다. 빌린 돈까지 합쳐 러시아-미국-이탈리아 국제 등에 베틀하는 트레이딩을 주도했다. 그 바람에 월가 안팎에서 '천재적 악마'로 불린다.

백우진의 돈의 세계

K전략산업 이야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사진)과 한국형 원전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T-50은 무관심 속에서 날아 올랐고, 한국형 원전은 극심한 반대를 뚫고 건설됐다. T-50이 초도비행에 성공한 2002년 8월 20일. 개발·제작에 참여한 한국우주항공 사람들과 관련자를 만난 공군 관계자들은 감격에 휩싸였다. 외부 반응은 엇나서 있었다. 저녁 방송은 이 성과를 단신으로 처리했다. 다음 날 신문 기사는 단

한 건이었다. 한국형 원전의 기본형인 한빛 3·4호기 건설이 추진되던 1980년대 중반. 한국 전역에서 반핵운동이 타올랐다. '반핵'은 '반전 평화'와 연대했고, 그 기치 아래 해당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대학 운동권이 결집했다. 야당도 동조했다. T-50과 한국형 원전은 미국 모델에 바탕을 두었지만 국내 기술진의 손으로 설계됐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다. T-50을 기본형으로 경공격기 TA-50에 이어 본격 경공격기 FA-50이 나왔다. 한국형 원전은 OPR1000에서 APR1400으로 개량됐다. 그 결과 발전용량이 1000MW에서



1400MW로 커졌고, 계속운전 갱신기한이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돼 경제성이 좋아졌으며, 안전성과 방재력도 강화됐다. 두 전략산업은 수출을 장기 목표로 잡았다. 1989년 기초연구를 승인받은 T-50과 1984년 착수된 한국형 원전은 약 20년 뒤인 2009년 나란히

수출 전선에 나선다. 한국형 원전이 먼저 개가를 부른다.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따낸다. T-50은 이때 싱가포르에서는 고배를 마시지만, 2011년 인도네시아와 16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역이 된 FA-50은 누적 138대가 수출됐다. FA-50 추가 수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T-50이 지난해 스페인의 새 고등훈련기 후보 중 하나에 올랐다. 한국형 원전은 체코 수주를 놓고 프랑스와 경쟁 중이다. 시원한 낭보를 기대한다.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주)대표**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손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입차 5개 연순수익 \$218,000</p> <p>참고</p> <p>전기시설 완벽한 참고자리 임대 9000 SF 현트, 버지니아</p>	<p>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사무실</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사무실</p> <p>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버블티 가게</p> <p>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판매가 36만불</p> <p>상가</p> <p>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상가</p> <p>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오피스, 1백1십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임대계약, 35만불</p> <p>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워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식당 자리</p> <p>5500 SF, 임대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p> <p>식당자리 제과점 건물매매</p> <p>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백클린</p> <p>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p>
---	---	--	---	--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참고

사업 체

공장 / 사무실 / 참고 설립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스지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투자성·지수형 연금, 손실 위험 막아준다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스크 관리

지난주 국내총생산(GDP) 데이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져왔다.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투자환경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주 시장은 부정적인 GDP 데이터 이후 금요일 하이테크 부문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최근의 손실분을 소폭 회복했다. 어쨌든 4월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다.



투자 목적과 목표를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개별 종목이나 ETFs 등의 비용은 없거나 낮지만, 별도의 운용비용이 있다. 물론, 직접 할 수 있다면 직접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어렵다면 손실 리스크에 대한 방어기제를 가지는 다른 옵션들도 있다.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주거나 부분적으로 막아주면서 적정 수준의 잠재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옵션으로 지수형 연금, 지수연계형 투자성 연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다. 시장의 향배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목표 확인이다. 투자목적과 목표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투자전략, 방법 등을 찾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은퇴자산 관리는 안전성과 보장소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 리스크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이는 더욱 중요해진다.

지난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불과 1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미국 내 전체 모기지 자산의 30%가 채용자를 했다. 모기지 이자가 최저점을 찍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모기지 상환 기간을 다시 늘려 놓은 셈이지만 월 상환금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자가 높아 전혀 다른 환경이 됐다.

이자가 높은 것은 신규 용자나 채용자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은퇴자산 관리에는 유리한 환경이다. 은퇴연금의 이자수익률이 현저히 개선됐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이나 이자가 오르기 전에 가입했던 연금은 리무를 해봐도 좋은 시기다. 해약 수수료 적용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받게 될 보장소득이나 개선된 수익성을 감안하면 훨씬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우려

웰스파고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0년대 이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은 13차례 있었다. 개별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분모는 연방준비제도가사회의 통화정책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 연준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강해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 긴축기조를 강화하거나 지속하면 경기는 더 냉각될 것이다. 진퇴양난이 되는 셈이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정부지출은 줄지 않는 환경이어서 더 어렵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이율 1.6%에 그친 탓이다. 예상치의 중간값인 2.2%를 훨씬 밑돈 수치다. 전 분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이기도 하다. 반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는전 분기의 1.8%에서 3.4%로 경중 뛰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 성장세는 둔화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합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연착륙' 시나리오

능동·전술 투자 분산 포트폴리오 활용 고금리 보장 소득·잠재적 수익률 개선 재용자 불리해도 은퇴 자산 관리 유리

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결림돌들이 있지만,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과 소비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둔화가 진전될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 역시 연준의 전향적 완화 기조를 유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데 이터다. 연준이 불가 상승세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환경

몇 가지 기술분석적 데이터는 시장의 추가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매수 신호를 보내는 S&P 500종목의 비중이 전체의 75%를 넘으면 어김없이 조정을 경험한 바 있다. 여덟번 중 일곱번 하락했고, 평균 하락 폭은 12.8%였다. 한 차례 이런 조정을 피해갔던 시기는 지난해 12월이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

한 탓에 상승장이 추가 탄력을 받았던 시기다.

경기나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한쪽으로 기운 투자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수익성을 위해선 증시 노출이불가피하지만, 주기적인 시장의 부침을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칫 손실이 커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시는 일반적으로 주기가 있다.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다. 하락장이 단순 조정일 수도 있고 좀 더 깊은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다. 현재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대확장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향후 20~30년간 증시의 평균 수익률이 4~5% 정도 선일 것으로 예상한 보고서도 있다. 최근의 상승장에만 익숙해진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요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제로' 가 될 수도 있

다는 의미다. 활용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운용비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낮을 수도 있다. 향후 20~30년의 수익률은 지난 30년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무작정 공격적인 투자가 기대하는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을 수 있다.

▶인덱스 투자

많은 이들이 비용 절감을 강조한다.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펀드를 주로 활용하는 투자는 비용절감 효과 때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능동적 뮤추얼펀드의 성적이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등에 비해 특별히 우월하지 않다는 점도 인덱스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한 가지 결정적 단점이 있다.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등락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투자환경이 악화되면 그만큼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인덱스 펀드나 ETFs를 활용하더라도 이들이 갖고 있는 시장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전술적 분산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문사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생명보험 활용 IRA 증식

자산 보호 및 상속 극대화 최고 전략
생명보험금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

한인 이민 역사가 길어지고, 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은퇴연금(IRA)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인들이 많아졌다.

이는 한인들이 미국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IRA 선택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RA에 보유 자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은퇴 후 IRA를 은퇴 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자산들이 풍부해 IRA에 있는 자금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한인들도 많다.

IRA는 세금을 유예한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IRA의 자산이 증가하면, 증가한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IRA 전체 금액이 오히려 전달되지는 못한다.

또한 IRA의 자산을 계속 미루면서 불리 수단은 없다. 법으로 정해진 인출시기인 RMD가 73

세이기 때문에 73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정해진 일정 퍼센트는 꺼내야 한다. SECURE ACT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Lifetime Stretching이란 것이 있어서 자녀에게 물려 줄 경우 조금씩 인출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가 물려받은 IRA 자산은 10년 안에 인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플래닝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속을 만들어 낼 수 있다.

IRA 극대화 전략 중 생명보험으로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알아보자.

미국인들은 생명보험을 활용해 IRA 자산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는 생명보험을 통한 IRA Stretching 전략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금을 최소화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그 자체로 세금 혜택이 있는 재정상품으로, 생명보험금

은 유일하게 세금 없이 그대로 상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RA 계좌에 50만 달러를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노후자금에 충분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RMD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인출해야 하지만, 남은 자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 시, 자녀들은 상속받은 IRA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SECURE ACT법안에 따라 10년 이내에 모든 금액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자녀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인출을 미룬다면, 10년째에는 큰 금액을 인출해야 하므로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만약 연방정부 그리고 주 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에 세금으로 20만 달러를 내야 한다(50만 달러 x 40%). 하지만, 미리 플래닝을 통해 2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들어 두었다면 어떨까. 또한 매해 인출해야 하는 RMD금액을 사용해 생명보험을 들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IRA를 상속받을 때, 그들은 또한 2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을 세

금 없이 받게 된다. 자녀는 이 사망보험금을 사용하여 상속받은 IRA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IRA 50만 달러는 세금 부담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세후 상속액 30만 달러보다 약 65% 증가한 금액을 상속받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녀들은 또한 아래 두 가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첫째, IRA 전액 인출 및 재투자다. 자녀들은 IRA를 전액 인출하고, 50만 달러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RMD 규정 없이 투자를 관리할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완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10년 동안 IRA 인출 및 세금 연기다. 자녀들은 현재 법률에 따라 10년 동안 IRA를 조금씩 인출하면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 보험금을 사용해 인출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IRA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계획이라면 재정 전문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통해 미리 플래닝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투자의 경제학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인공지능 PC

베스트바이 PC 판매 증가로 등급 상향
AI 장착 개인 컴퓨터 차세대 투자 대상

지난 3일 금융사 시티 그룹은 가전제품 판매 업체 베스트바이의 투자등급을 매도(Sell)에서 매수(Buy)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증권가에서 한 번에 두 단계씩 투자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증권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등급 상승이 일어난 것은 최근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공지능(AI)와도 무관치 않다.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인 컴퓨터 판매량은 2023년도에 전년 대비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도 마지막 분기 소폭 반회하기 전까지 8분기 연속 하락세였다고 한다.

증권가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더불어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엔비디아의 매출 급증을 가져다준 GPU처럼 AI 기능이 장착된 개인 컴퓨터가 차세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AI 기능이 장착된 개인 컴퓨터가 컴퓨터 교체 기관과 맞물리며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개인 컴퓨터 판매도 바닥을 치고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스트바이의 등급 상향 조정도 베스트바이의 비용 절감 노력 등 당사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

라는 기대와 함께 PC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점은 베스트바이가 아니라 AI의 역할로 인한 개인 컴퓨터 판매 증가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와 관심이다.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있는 컴덱스 2024 박람회에서는 AI 반도체의 강자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인텔 등이 개인 컴퓨터에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CPU 반도체 발표를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

증권가보다 앞서 개인 컴퓨터 시장에서의 AI 개인 컴퓨터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다 그동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I가 장착된 컴퓨터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호응을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챗GPT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아 AI 기능이 장착된 개인 컴퓨터에 대한 가능성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 1면 '엔비디아'에서 이어집니다

AI 시장 경쟁에서 뒤쳐진 탓이다.

애플 주가도 조만간 AI 청사진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에 꿈틀대는 모습이다. 박경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10~14일에 열리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애플이 생성 AI 관련 신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은 iOS라는 독립적인 운영체제와 현대화 등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인 만큼 AI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전망이 더해지며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이날 S&P500 지수는 전날보다 1.18% 오른 5354.03, 나스닥 지수는 1.96% 상승한 1만7187.91을 기록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인 암(Arm) 주가가 8.59% 폭등한 것을 비롯해 TSMC와 AMD도 각각 6.85%와 3.86% 상승했다. 브로드컴과 퀄컴도 6.18%와 3.68% 각각 올랐다.

하남현 기자

독자가 행복 해진다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마트 건너편(+mar)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잭슨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편안플러스(+mar)와 잭슨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신세대·X세대 떠오르고 Y2K 걱정 그 시절

논란의 논문 근거 살살이 살펴 비판



90년대
척 클로스터만 지음
임경은 옮김
온워드



모든 현재의 시작, 1990년대
윤여일 지음
돌베개



해가 바뀐 직후인 2000년 1월 2일 당시 Y2K 정부 종합상황실 모습. 각국에서 우려했던 문제는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포토]

인터넷은 있었지만 각종 소셜미디어는 아직 없었다. 지금의 각종 우려나 비판과 비교하면, 1990년대의 인터넷은 낙관주의적 전망으로 점철된 신세계였다. 실은 일상의 필수품도 아니었다. 기업에 요긴한 건 인터넷이 아니라 여전히 팩스였다. 일례로 미국의 팩스 판매 수익은 1997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 정점을 찍었다고 한다.

『90년대』(원제 The Nineties: A Book)는 이런 면면을 포함해 90년대라는 재료를 미국 중심으로 맛깔나게 요리하는 책이다. 그 초점은 폭넓은 의미의 대중문화. 20대 작가 코플랜드의 책 제목으로 부상한 용어 'X세대' 이야기를 시작으로 대중음악, 영화, TV, 스포츠, 인터넷 그리고 OJ 심슨 재판이나 르윈스키 스캔들 같은 사건까지 아울러 90년대의 주요한 흐름을 짚는다.

이 책이 다루는 90년대의 성격은 저자가 그 시작을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그 끝을 2001년 9·11테러로 꼽는 데서도 짐작된다. 구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 최강대국이 된 미국에게 대외적 위협이 없었던 시기, 대

내적으로 경제가 상대적으로 긴 호황을 누렸던 시기다.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걸프전은 미국 바깥에서 벌어졌고 미국의 빠른 승리로 끝났다. 저자는 승리한 전쟁을 주도한 조지 H W 부시가 재선에 실패하고 로스 페로라는 제3후보가 약진한 1992년 대선은 물론 전통적인 양당 후보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2000년 대선까지 이 책에 포함한다. 특히 플로리다주 재검표 여부를 두고 대법관들의 견해가 양분된 것은 이분법적 대답이 극단화한 현재 미국 상황의 전조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자신이 X세대인 저자는 사건과 인물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주제마다 자신감 있게 뚜렷한 초점을 내세워 이야기를 엮어낸다. 예컨대 농

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갑자기 야구에 뛰어든 일은 90년대 중반 메이저리그의 위상 변화 얘기로 이어진다.

TV는 90년대의 중요한 매체로서 책 곳곳에서 언급된다. 요즘 OTT나 VOD를 보듯 시청자가 원할 때 볼 수 없었던 시청 방식이 그 초점. 90년대는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대로, 딱히 볼 게 없어도 습관처럼 보는 수동적 시청을 하던 시기, 그래서 지식인들은 드라마를 안 보는 걸 당연시했던 시기, 하지만 '소프라노스' 같은 고품질 드라마가 나와 시선을 바꿔 놓은 시기였다. VHS 비디오 테이프 역시 90년대의 변별점. 동네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을 법한 외국어 영화를 비롯해 한결 다양한 영화가 유통된 결과는 '저수지의 개들'의 타란티노 같은 새로운 창작자 얘기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90년대를 미화하거나 입맛에 맞춰 재단하는 것 같진 않다. TV 드라마 '사인필드'와 '프렌즈', 온갖 철학적 해석을 낳은 영화 '매트릭스'와 시나리오를 지극히 평범했던 '타이타닉' 등 서로 대비되는 특징을 지적하면서도 각각의 인기 대해 내놓은 해석이 꽤 설득력 있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90년대와 비슷하거나 다른 점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모든 현재의 시작, 1990년대』가 눈길을 끄는 것은 그래서다. 사회학을 전공한 저자가 학술지·문예지·대중문화지를 비롯한 당시 잡지들의 문헌을 바탕으로 한국의 90년대를 조명하는 책이다. 지성사를 필터로 삼은 점에서 읽는 재미는 덜하지만, 필터 자체가 90년대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의 90년대는 강제 폐간됐다 복간된 잡지들에 더해 새로운 잡지들이 붓물처럼 창간되고, 신세대·지식인·문화권력·박정희 등 논점마다 지성계의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였다.

저자는 90년대의 시작으로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시점을 제안하는데, 그 끝은 IMF 외환위기를 넘어 2002년으로 이어간다. 월드컵과 촛불시위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까지 2002년을 아우르는 키워드 '대중'을 90년대의 특징으로도 보는 셈이다.

Y2K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90년대에 빠지지 않는 얘기다. 컴퓨터가 두 자리 숫자로 연도를 인식해 2000년을 '1900년'으로 오인해서 생길 문제는 새천년을 앞둔 전 세계의 공통된 근심이었다. 결과적으로 별 일은 없었다. 『90년대』의 저자는 Y2K를 사기로 치부하는 대신 이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 결과로 본다. **이후남 기자**



관동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
와타나베 노부유키 지음
이규수 옮김
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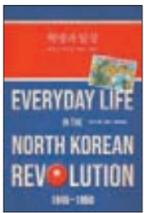
오는 9월 1일은 일본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23년 이날 오전 11시 58분 규모 7.9의 대지진이 관동지방 남부에서 발생해 도쿄, 요코하마 등에서 10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4만3000여 명이 실종됐다. 지진 직후에는 수천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거나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 때문에 끔찍하게 살해되는 참극이 빚어졌다.

당시 일본 제국은 관동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대학살을 애매모호하게 덮어 버렸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은 학살부정론자들이 그 기억의 씨앗조차 지워 버리려고 하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 그룹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던 존마크 랩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당시 유언비어가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 살해당한 조선인의 수는 그동안 알려진 만큼 많지 않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2019년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관동대지진, 학살 부정의 진상』은 아사히신문 기자 출신인 논픽션 작가 와타나베 노부유키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랩지어 교수와 랩지어 교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주로 당시 일본 신문 기사들이었다. 와타나베는 유언비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목격담으로 보도한 기사들이 작성된 배경과 실태를 낱알이 살펴봤다. 학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일본 정부가 조작한 가짜 뉴스와의 관계도 분석했다. 관동대지진 직후 내무대신을 지낸 고토 신페이가 남긴 '지진 후 형사사범 관련 사항 조사서'는 유언비어의 내용처럼 조선인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토 신페이 문서를 바탕으로 2008년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의 '재해 교훈 계승에 관한 전문조사회'가 정리한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와타나베는 소개한다.

지금도 한 일 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정치든 국제 관계든 '팩트'가 아니라 '내 주장'을 우선 시하는 영타리 논리가 통용되곤 하는 것이 안타깝다.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라 우기는 것이 팩트인양 받아들여지는 세대에서도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한국학자가 아니라 일본인이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의 관계를 추적해 밝혀 낸 용기와 양심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한정환 기자**

책꽂이



혁명과 일상 (김수지 지음, 윤철기·안중철 옮김, 후미타나스)=브루스 커밍스의 제자로 미국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의 북한을 당시 평범한 농민·노동자·여성이 남긴 기록을 통해 조명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이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해방 전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담았다.



못생긴 서울을 걷는다 (허남설 지음, 글항아리)=한국의 재개발은 원주민 재 정착 비율이 낮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축을 전공하고 일간지 기자로 일해온 저자가 백사마을, 창신동, 세운상가 등의 재개발 혹은 도시재생의 상황과 문제를 살폈다. 재개발 비용, 주민의 기존 생활권과 도심 거주권 등을 고루 짚는다.



생물학적 풍요 (브루스 베게리 지음, 이성민 옮김, 히포크라테스)=캐나다 출신 생물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저자의 1999년 저서의 한국어판. 포유류·조류를 중심으로 수백종 동물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 동물의 성적 다양성을 망라해 소개한다. 동성애의 진화적 가치를 비롯해 관련된 학문적 논쟁들의 내용도 전한다.



이중섭, 편지화 (최열 지음, 혜화1117)=화가 이중섭(1916~1956)이 가족들에게 꾸준히 보낸 편지의 그림, 그림만 담거나 때로는 그림과 글씨를 조합시킨 그림을 그의 길지 않았던 삶과 함께 조명한다. 미술사학자로 『이중섭 평전』을 썼던 저자는 이런 편지화를 이중섭이 창안한 새로운 미술 장르로 보고 의미, 내용, 형식을 모두 탐색했다.

☎ 지금 연락 주세요!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703-537-9899 | 703-591-0009

👉 자동차 보험료 👈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Partner
보험회사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딸의 남자와 씬타고 키스, 전도연이 그린 고전의 변주

큰딸의 남자와 '씬'을 타다가 작은딸의 남자와 키스를 한다. 이게 딸이 되나 싶지만, 주어가 '전도연'이라면 웬지 납득이 간다.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가슴 깊숙이 묻고, 술과 약과 남자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며 처연하게 웃음짓는 그의 얼굴에 누가 침을 뱉을까.

'27년만의 연극 출연'으로 호기심을 부채질했던 전도연의 '벚꽃동산'(7월 7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이 4일 베일을 벗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연출가라는 사이먼 스톤과 LG아트센터의 협업인지라 '올해 연극계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며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다. 개막일엔 유인촌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공연계 인사들, 토니상과 올리비에상을 석권한 유럽의 연출 거장 이보반 호브까지 찾아올 만큼 국내외 관심이 쏠린 무대다. 이미 내년 호주 아틀레티드 페스티벌 투어가 확정됐고, 유럽 투어도 타진 중이라고 한다.

'핫한 연출가' 사이먼 스톤·LG아트센터 협업

'벚꽃동산'은 '리얼리즘 연극의 아버지' 안톤 체홉(1860~1904)이 혁명 직전 불안한 기운이 가득하던 1904년의 러시아 사회를 초연하게 그린 작품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과 변화에 영 적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며 웃픈 장면들을 이어가는 희비극이다. 사이먼 스톤은 이걸 2024년의 한국인들 이야기로 짠 바꿨다.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지만 이런 고전의 과격적 변주는 사실 배우에 앞서 해석의 예술이다. 전도연과 영화 '너는 내 운명'(2005)을 함께 했던 배우 황정민도 같은 LG아트센터에서 연극 '맥베스'를 연습 중이라 개막일 관람했는데, 시작 전 기대감을 묻자 "체홉이 원래 재미없지 않냐"고 하더니 공연 후에는 "내가 알던 벚꽃동산과 전혀 달라서 너무 좋았다"고 했다. 이보반 호브도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벚꽃동산'의 위대한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추켜세웠다.

호주 출신 영화 감독이자 연극 연출가인 사이먼 스톤은 온갖 고전을 머릿

속에 아카이빙해 놓고 가는 곳마다 적절한 작품을 꺼내 맞춤형으로 각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지난해 한국에 답사를 와서 직접 '벚꽃동산'을 선택했다고 한다. 세계적 연출가가 고전의 현재적이고 한국적인 변용을 시도했다는 것도 흥미롭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사회의 현주소도 관련 포인트다. 스톤이 바라본 한국사회가 '벚꽃동산'인 셈인데, 원작이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억눌린 민중의 불만과 기득권층의 불안을 예리하게 포착한 텍스트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스톤은 뒤편 가장 빠르게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사회에 내재된 불안감을 간파한 것이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 이후 뉴욕으로 떠났던 재벌 3세 송도영(전도연)이 5년 만에 실연의 상처를 안고 그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서울로 돌아온다. 상속받은 기업은 오빠 송재영(손상규)의 방만한 경영으로 파산 직전이다. 입양한 큰딸



1

전도연 27년만의 연극 출연 화제

안톤 체홉 동명의 작품 현대적 각색 재벌집안 복고·혁신 충돌 과정 그려 '이상향' 벗어나, 계단 모양 집 대체 빠르게 변하는 한국 사회 불안 표현

강현숙(좌회자)은 부사장이지만 힘이 없고, 엄마의 남성 편력에 신물 난 작은딸 해나(이지혜)는 해방을 꿈꾼다. 놀고먹는 사촌 김영호(유병훈)는 쓰러지는 송씨 집안에 돈을 꾸러 드나들고, 젊은 가정부는 운전기사라 비서 사이 인스턴트 연애에 몰두한다. 어린 시절 송도영을 동경하던 옛 운전기사의 아들 황두식(박해수)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이 '아름다운 콩가루 집안' 주변을 맴돈다.

K콘텐츠 마니아라는 스톤은 영화 '기생충'의 세계관에 영감을 받은 듯하다. 다른 버전의 '벚꽃동산'에서 흔히 오브제로 쓰이는 벚꽃나

무 한 그루를 거대한 레고블록같은 집 한 채가 대신한다. '일본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이 제목은 한국인들이 품고 있는 이상향으로, 사람들은 시종 계단 모양의 지붕을 불안하게 오르내린다. "서구에서는 거의 사라진 건강하지 못한 위계질서와 관계성이 아직 존재하는 사회". 스톤이 바라본 한국이다.

일건 전쟁 이후 부를 일군 특권층과 하부계층의 대립구도인 듯 하지만, '기생충'이 그랬듯 단순하지 않다. 죽은 아들의 과외선생 변동림(남운호)의 대사가 스톤의 정치적 시선을 반영한다. "무력한 정부 아래 우리는 오로지 이윤만 좇는 기업에 충성하면서 봉건시대보다 불평등한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기에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대상이 재벌 3세의 올드머니가 아니라 벼락부자의 불도저인 것이다.

일찌감치 전석 매진 ... 내년 호주 투어 확정

전도연과 박해수는 복고와 혁신이라는 한국 사회의 충돌하는 가치를 충실히 대변한다. 원작의 몰락 귀족 류바는 '기생충'의 부자집 사모님 최연교(조여정)처럼 우아를 떨지만, 송도영은 대놓고 딸의 남자에게 추파를 던질 정도로 훨씬 과감해졌다. 전도연의 어딘지 뉘페적이고 특유의 나른한 태도는 담도 없이 나이브한 재벌 3세 송도영이라는 캐릭터에 더없이 찰떡인지라 대단한

연기 변신은 없지만, 존재감만으로 관객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파산은 아랑곳 않고 1954년산 텐테이블을 자랑하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 운운하는 오빠 송재영은 도영의 정서적 쌍둥이다. 황두식은 남매가 소중히 여기는 무형적 가치를 '고장난 벽시계' 취급하며, 끝내 이들의 '동산'에 렉서리 호텔을 짓기 위해 '아름답되 쓸모없음'의 상징인 벚꽃나무를 다 밀어버린다.

이 무대에서 오버스러운 무대 화술을 구사하는 건 박해수 뿐이다. 파산 위기에 돈 문제에 초연한 송씨 남매에게 돈 얘기만 하는 벼락부자 황두식은 그저 우스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박해수의 연극배우 출신다운 뜨거운 에너지가 자꾸만 차갑게 식으려는 무대의 온도를 끌어올려 준다.

어쩌면 이 혼자만 뜨거운 황두식이 야말로 사이먼 스톤이 정의하는 한국인이 아닐까. 역사와 전통을 불도저처럼 밀어버리고 고층의 상업시설을 부지런히 지어 올려도, 그런 한국을 송씨 남매처럼 나른하고 무심하게 바라보는 서구인들은 부러운 기색도 없다. 불도저를 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공허함을 이미 알고 있을 뿐.

"전부다 부숴버려. 새로운 시대가 올 거야. 오늘이 시작이야". 안전도를 쓰고 공사를 시작하는 황두식 뒤로, 귀를 찢는 EDM 전자음향이 막을 단는다. 황두식의 새로운 시대, 아니 한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처럼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유주현 기자



3



2

1 연극 '벚꽃동산'의 전도연. 2 건축가 사울김이 디자인한 무대세트. 재벌3세 대저택의 별채라는 설정이 관음증을 자극한다. 3 황두식 역의 박해수. [사진 LG아트센터 서울]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 타운홈
\$1,110,000	\$426,000	\$58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고급가구 Moving Sale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신’ 나는 인니 축구... 빅리거 한꺼번에 2명 배출

(신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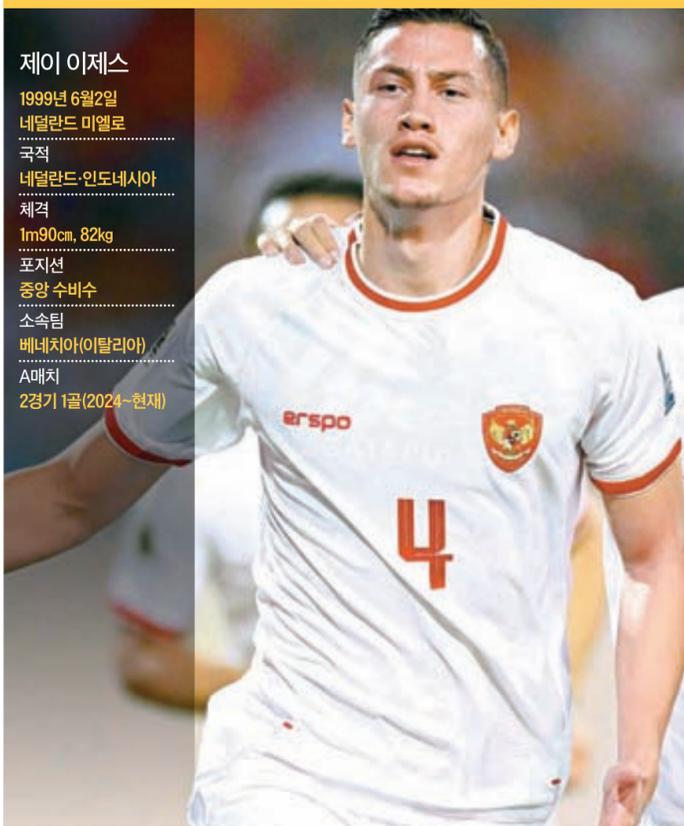
한국인 지도자 신태용(53)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다가올 2024~25시즌에 유럽 축구 무대에서 활약할 2명의 빅 리거를 배출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보이스 오브 인도네시아는 5일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축구대표팀이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주인공은 장신 수비수 제이 이제스(24-베네치아)와 엘칸 바곳(21-임스위치 타운)이다. 이제스(1m90cm)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인도네시아 출신 조부모를 둔 인연으로 지난 3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합류했다. ‘가루다 군단(인도네시아 대표팀의 별칭)’에 몸담자마자 주축 수비수 자리를 꿰차며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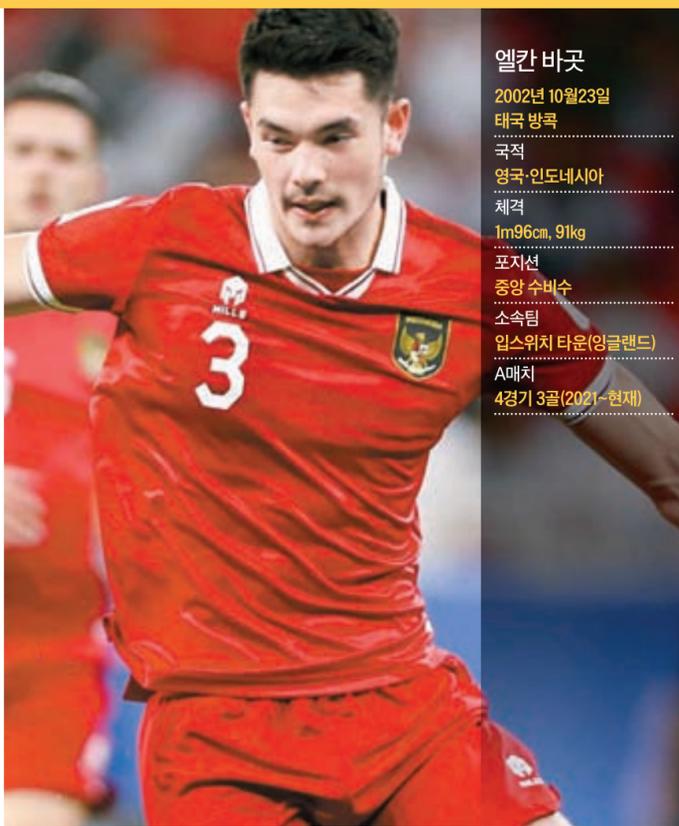
바곳(1m96cm)은 영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선수다. 출생지는 태국이다.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19세 이하(U-19)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 기량을 인정받아 한 해 뒤 곧장 A대표팀에 발탁됐다. 21세의 젊은 선수지만, 일찌감치 A매치 2경기(3골)를 소화하며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를 이끌 재목으로 떠올랐다.

이제스는 이탈리아 세리에B(2부리그) 무대에 머물던 소속 팀 베네치아의 세리에A(1부리그) 승격을 이끌었다. 지난 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스타디오 피에르루이지 펜초에서 열린 크레모네세와의 2023~24시즌 승격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베네치아의 무실점(1-0) 승리에 기여했다. 여러 차례 아찔한 실점 위기를 온 몸을 던져 막아낸 이제스의 투혼을 앞세워 베네치아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 새로 쓴 빅리거 듀오



제이 이제스
1999년 6월2일
네덜란드 미델로
국적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체격 1m90cm, 82kg
포지션 중앙 수비수
소속팀 베네치아(이탈리아)
A매치 2경기 1골(2024~현재)



엘칸 바곳
2002년 10월23일
태국 방콕
국적 영국-인도네시아
체격 1m96cm, 91kg
포지션 중앙 수비수
소속팀 임스위치 타운(잉글랜드)
A매치 4경기 3골(2021~현재)

는 2021~22시즌 강등 이후 2년 만에 세리에A로 승격하는 데 성공했다.

바곳은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을 검토한 적도 있다. 최근 임대 생활을 마치고 원소속팀 임스위치 타운으로 복귀하며 EPL 데뷔를 예약했다. 지난 시즌 리그1(잉글랜드 3부리그) 소속 브리스톨 로버스로 임대돼 꾸준히 출장하며 경험을 쌓았다. 때마침 소속 팀인 임스위치 타운이 올 여름 챔피언십(2부리그)을 2위로 마치면서 EPL 승격에 성공한 덕분에 새

시즌엔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뛰게 됐다.

그러나 바곳은 이달 A매치 소집 대표팀 명단에는 뽑히지 못했다. 지난달 9일 프랑스 클레르퐁텐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 기니(아프리카)의 파리올림픽 대륙간 플레이오프(인도네시아 0-1패) 직전 신태용 감독의 긴급 호출을 받고 그는 응하지 않았다. 승리할 경우 지난 1956년 이후 68년 만에 인도네시아가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바곳은 “미리 잡아 놓은 개인 휴가 일정이 있다”며 올림픽팀

합류를 거부한 뒤 몰디브로 떠났다. 신 감독은 이달 인도네시아 대표팀 소집 직후 바곳을 선발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수에게 물어보라. 나보다 선수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19년 신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인도네시아는 국내파 선수를 적극적으로 해외 무대에 내보내고,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현역 선수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중 전략으로 대표팀 체질을 확 바꿨다. 이달 A매치를 위해 소집한 24명의 대표팀 멤버 중

절반이 넘는 14명이 해외파다. 그중 유럽파만 10명이나 된다. 앞으로 바곳이 합류할 경우 해외파는 15명, 유럽파는 11명으로 늘어난다.

보이스 오브 인도네시아는 “신 감독이 주도한 다양성 전략이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면서 “파리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한국을 무너뜨린 것에서 보듯 인도네시아 축구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지훈 기자

손흥민, 월드 클래스 맞네... 세계 공격수 순위서 10위

ESPN 포지션별 선수 순위 선정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미국 ESPN이 선정한 전 세계 공격수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했다.

ESPN은 최근 2024년 세계 남자 축구 최고 선수 10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등 포지션 별로 가장 뛰어난 선수 100명을 선정했다. 골키퍼 10명, 수비수 30

명, 미드필더 30명, 공격수 3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 대표팀과 소속 팀 토트넘에서 각각 주장으로 활약 중인 손흥민은 공격수 부문 30명 중 10위로 뽑혔다. 손흥민은 올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리그 득점 랭킹에서는 8위, 도움 랭킹에서는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보다 순위가 높은 공격수 부문 1~9위는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

드),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필 포든(맨시티), 부카요 사카(아스널) 등이 차지했다.

수비수 부문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힘을 보탠 안토니오 루디거레

알 마드리드가 1위에 올랐다. 2위와 3위엔 각각 윌리엄 살라바(아스널)와 버질 판데이크(리버풀)가 뽑혔다.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명단에 들지 못했다. 미드필더 부문에선 로드리(맨시티)가 1위,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이 2위였다. 마르틴 외데고르(아스널)는 3위를 차지했다.

ESPN은 손흥민의 주요 특징으로 스피드와 양발을 사용한 간결한 마무

리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0골-10도움 이상을 기록한 5명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SPN은 “새로운 스타일의 감독이 오더라도 손흥민의 입지는 변함없다. EPL에서 가장 꾸준히 성공을 거둔 선수이자 최고의 피니셔 중 한 명으로, 31세의 나이에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5시즌 동안 그는 EPL에서 평균 15.6골, 8.4도움을 기록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피주영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한국 첫 서양화가 고희동, 세 점의 자화상으로 남다

‘빨래터’라는 이름의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단정한 ‘ㄷ’자형 집이 있다.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고희동미술관이다. 창덕궁 후원의 서쪽이라 해서 원서동, 조선 궁인과 일반 백성들이 함께 빨래하던 이곳엔 지금도 물이 흐른다. 창덕궁 담장의 북쪽 끄트머리에 춘곡 고희동(1886~1965)이 집을 지은 것은 1918년. 고운 자갈 깔린 담벼락 안의 시간은 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쿄미술학교의 첫 한국인 입학생으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고희동은 보성·중동·중앙·휘문 등지에 도화교사로 나가면서 미술부 제자들을 이 집으로 불러다가 석교 데생을 지도했다. 한국 서양화가 1호가 개설한 최초의 서양화 연구소였던 셈이다. 고희동이 서화 스승 안중식·조석진과 함께 최초의 미술가단체 서화협회를 결성한 것도 집을 지은 바로 그 해다.

고희동은 여기서 41년을 살았다. 집은 세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2002년 헐릴 뻔했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나서 등록문화재가 됐다. 이후 종로구에서 사들여 2012년 고희동 가옥으로, 2019년 고희동미술관으로 문을 열었다.

한국 서양화가 1호. 조선인 최초로 도쿄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돌아온 그는 내내 이렇게 불렸다. 1915년 졸업 후 귀국한 게 신문에 실릴 정도였다. 매일신보는 그를 소개하기 위해 서양화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했다.

최초 서양화 연구소 열어 데생 지도

“동양의 그림과 경위가 다른 점이 많고 그리는 방법도 같지 아니하며 또한 그림 그리는 바탕과 그 쓰는 채색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른 그림인데...기름기 있는 되다란 색으로 그린 것이라.”

이렇게 서양화가 된지도 모르던 시절, 그는 어떻게 유학가 서양화를 공부하고 올 생각을 했을까?

조부부터 부친까지 3대가 중인(中人) 역관이였다. 의사·통역관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중인들은 빠르게 서류를 읽고 유연하게 대처했다. 부친 고영철(1853~1911)은 1881년 영선사(領選使)로 중국에 가 영어를 배웠고, 2년 뒤 첫 미국 사절단인 보빙사(報聘使)의 일원으로 미국도 다녀왔다.(조은정, 『춘곡 고희동』, 컬처북스)

고영철은 셋째 아들 희동에게 프랑스어를 배우게 했다. 고희동은 13세 되던 1899년 한성범어학교에 입학했다. 16~25세가 다닐 수 있는 학교였는데, 나이 제한도 무시하고 조기 입학시킬 수 있었던 수완이 놀랍다. 고희동은 교장 에밀 마르텔에게 프랑스어 통번역을, 수비대 장교인 비르코프에게 체육을, 레미옹에게 미술을 배웠다. 다른 학교에서는 ‘도화’라고 부르던 과목이었다.

레미옹은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프랑스인 미술가다. 세브르 국립도자제작소 출신으로 1900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고희동미술관 전경 일러스트. 1918년 고희동 화백이 일본 유학 후 돌아와 직접 설계하고 지은 곳으로 41년간 거주했다. [일러스트 김민호]

서류 적응 빠른 역관 가문의 아들 10대 초반에 프랑스어 조기 교육 국비로 도쿄 유학가 서양화 공부

년 공예학교 창설을 위해 궁정에서 초빙했다. 세브르제작소 같은 황실 공예학교를 만들겠다는 고종의 계획은 좌절됐지만 레미옹의 방한이 헛되지 않은 않았다. 레미옹이 마르텔의 초상화 그리는데 걸 본 고희동이 서양화의 생생한 사실감에 매료됐고, 후에 일본에 유학가 서양화를 전공하게 됐기 때문이다.

1900년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 한국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희동이 프랑스어를 배운 것은 이 무렵이다. 졸업도 전인 1904년 공내부 주사가 됐다. 왕실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였다. 그러나 자고 나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던 시절이었다. 프랑스어의 인기는 1905년 이후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을사늑약 체결로 외교관이 전적으로 일본에 넘어가면서 서울의 외국 공사관이 모두 철수한 까닭이다. 프랑스어 전공자가 실 자리가 없어졌다. 고희동은 이 무렵부터 조석진·안중식 문화에서 전통 서화(書畵)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1909년 고희동은 “미술 연구를 위하여 일본국 동경에 출장을 명”하는 공내부의 직명을 받았다. 도화서 화원들이 소속돼 있던 장례원의 예식관으로 일하던 때였다. 출장이고, 관비 유학이었다. 미술이라는 신지식을 배워와 조선을 계몽하라는 거였다. ‘미술(美術)’은 1873년 일본에서 독일어 단어의 번역어로 탄생했고, 한국에서 1881년 일본 조사시찰단 보고서에 처음 등장

했다. 부국강병을 위한 신기술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경술국치 후 1911년 출장을 명했던 공내부가 사라졌다. 관리들도 해산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고희동은 계속 미술학교 학생으로 지내며 방학이면 귀국해 조석진·안중식에게 서화를 배웠다.

“최초”는 축복만큼이나 한계도 분명했다. 고희동이 돌아온 유학 시절이다.

“석고상을 놓고 화가(이젤)에 목탄지를 깬 까루등을 버티어 놓고 죽죽 써씩 그리는데 보기도 처음이요, 말도 들어본 일이 없었다. 6년 만에 졸업인지 무어인지 종이 한 장을 들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전 사회가 그림을 모르는 세상인데, 양화를 더군다나 알 까닭도 없고 유채를 보면 닭의 똥이라는 등 낚새가 고약하다는 등 나체화를 보면 창피하다는...” (고희동, ‘양화가 제1호’, 서울신문, 1959)

졸업하려면 자화상을 제출해야 했다. 현재 도쿄예술대학교 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고희동의 졸업작품은 ‘정자관을 쓴 자화상’이다. 정자관은 관리가 집안에서 편히 쓰는 모자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화가 고희동이 그린 자신의 모습은 망국의 관리였다. 한국인이 그린 첫 서양화였다.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역광 효과에 피부에도 보라색 기운을 넣었다. 보이는 색이 전부가 아니라, 빛에서 분해된 색을 조합하는 인상파의 보는 방식을 미약하나마 적용했다.

고희동은 이 그림을 비롯해 자화상을 세 점 남겼다.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은 ‘정자관을 쓴 자화상’과 같은 복장으로, 졸업작품을 위한 습작으로 보인다. 등록문화재가 된 ‘부채를 든 자화

상’은 흰 모시적삼 풀어헤치고 서재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화원 화가의 초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자유분방한 자세다. 배경에 서양 서적과 풍경을 그려 공들여 그려 넣어 지식인의 면모를 강조했다.

1933년 화가의 저작권 주장하기도

졸업작품 외 두 점은 1972년 극적으로 발견됐다.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 근대미술 60년전’을 열 때였다. 고희동은 1959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원서동 집을 정리하고 제기동으로 이사한다. 이때 행거든 짐꾸러미가 묶인 그대로 골방에 처박혔다. 아들 흥찬(1986년 작고) 씨가 꾸러미를 풀다가 뜻밖에 그림들을 발견해 미술관에 가져왔다. 캔버스 천이 찢어 떨어지고 화면도 더럽혀진 채였다. 한국 근대미술사상 가장 초기 유화의 출현이었다.(이규열, 『우리 근대미술 뒷이야기』, 돌베개)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최초의 서양화가였지만 서양화로 대성하지 못했다. 남아 있는 고희동의 서양화는 이 세 점뿐이다. “생활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1920년 이후 동양화만 그렸다. 그렇다고 허망한 유학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는 조선미술전람회와 별도로 ‘서화협회’를 조직해 1936년까지 매년 전시회를 운영했다. 관 주도의 조선미술전람회가 조선의 미감을 지배하던 시절, 서화협회전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이 공포된 게 1957년. 이보다 훨씬 앞선 1933년 화가의 저작권을 주장한 것도 고희동이었다. ‘화가의 보수금 청구’로 당시 일간지들에 보도됐다. 조선전직회사 사장 민규식에게 비단 보자기 무늬 도안을 그려줬는데 돈을 받지 못해 이 회사를 상대로 그림값 청구 소송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자화상에 그랬듯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누구보다도 강했기에 고희동은 ‘화가’라는 애매한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는 데 힘썼다.

근대를 가로지른 많은 화가들이 그를 통해 서양화를 배웠고, 유학을 다녀와 화단을 형성했다. 일제강점기 보성·중동·중앙·휘문 등 사립학교의 미술교사로 출강한 그의 제자 중에는 시인 이상, 1세대 서양화가 도상봉·이마동·오지호·구본웅, 그리고 간송 전형필도 있었다.

가장 먼저 서양화를 배우고 돌아온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가 집단인 서화협회를 구성했고, 해방 후 최초로 예술원 회장이 됐고, 최초로 국전 심사위원장이 됐다. 1960년 4·19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참의원이 됐으나 이듬해 5·16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돼 ‘최초의 화가 정치인’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미술이라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 근대인, 고희동은 1965년 10월 영면에 들었다. 예종장(葬)이 7일 동안 이어졌다.

권근영 중앙일보 기자·미술경영학 박사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후원 투자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자체 인테리어 소품 구비)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p>SOLD</p> <p>Bowie</p> <p>\$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UNDER CONTRACT</p> <p>Rockville</p> <p>\$280,000 콘도</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899,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Odenton</p> <p>\$365,000 타운홈, 방3, 화2</p>
<p>SOLD</p> <p>Cooksville</p> <p>\$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UNDER CONTRACT</p> <p>Rockville</p> <p>\$520,000 싱글홈, 방4, 화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 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p>RENT</p> <p>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p>	<p>RENTED</p>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RENTED</p> <p>Hanover</p> <p>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p>	<p>RENTED</p> <p>Germantown</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RENTED</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p>COMING SOON</p> <p>Hanover</p> <p>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RENTED</p> <p>Odenton</p> <p>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Contract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Is **\$589,900**



독점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80,000**



독점 Springfield 콘도

방2, 화장실2,
계단없는 1층, 나무마루, 업데이트 **\$317,000**



독점 Woodbridge \$2,750

2층 타운 홈, 엔드 유닛, 2,362 SF, 차고1, 고급 나무 마루



Rented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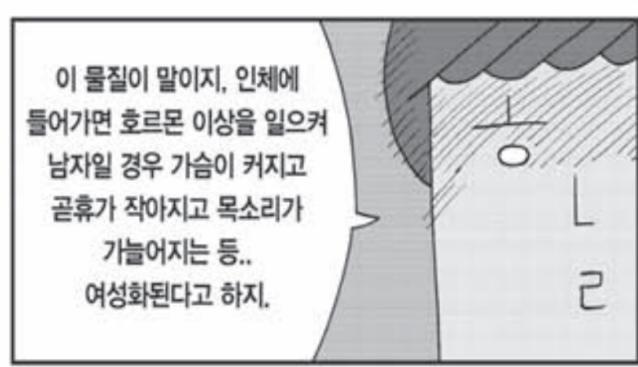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환경**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
 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일: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Assistant Pastor: Assist the senior
 pastor in the ministry for the adult
 congregation of the church; Preach,
 lead, administrate in worship services
 including praise and dawn prayer
 worship services.; Preside and perform
 baptism, communion, wedding and
 funeral services; Teach and train small
 group leaders for biblical servitude;
 Provide spiritual counseling to church
 members; Make visitations within
 Fairfax County VA and its BLS area.
 40hrs/week, 6 days/week, M.Div. in
 Theology and Ordination req'd.
 Send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Employer & Job Plac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KCPC at 15451
 Lee Highway, Centreville, VA 20121.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where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자'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드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
 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샌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샌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험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홀름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샌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슈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엇시티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유우경험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 ~ 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시간: 주 48 ~ 52시간
 -유경험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분)
 접수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플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정육부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엘리엇시티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유우경험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동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슈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워싱턴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
 201-551-8861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 분
703-798-7270

베이클샵에서 일 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 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티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이·미용실/네일/마사지>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 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용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매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드라이브에서 파트타임 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세탁수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리지 지역
571-455-3609

구독문의: 703-281-9660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슈어
703-628-9100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는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 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첸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하게 일 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하게 일 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딕트!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손 사이딩 크루 메케닉 구함
703 955 2827 / 540 680 157

에어컨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삭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딕트, 전기 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동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구인/구직>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아웃서해주시실분 (703) 473 6022.
워싱턴 델러스 공학라운지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일 하실 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51-8861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딕트 -유급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 하실 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 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방,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2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매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MD 락빌 홀푸드 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 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중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링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및 은행 도로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먼트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보장, 빗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노바 근처, 방1, 화장실1, 침대, 책상,
초고속 인터넷, 냉방, 출입문 별도.
조용하고 깨끗한 싱글홈. 즉시 입주 가능.
703-772-7680(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터 도서관 한아름
매트로 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301-655-3248

애난데일 Hmart 옆 방1 세놓음, 인터넷, 가
구일체, 취사가능, 유포 \$700, 직장다니는
여자, 즉시 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Woodstock, MD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유틸리티 포함(전기, 수도, 인터넷)
화장실/침대 구비 금연남성환영
443 983 1880 문자 주세요.

첸트리 타운홈 지하 워터방1, 거실1, 욕
실, 간단취사가능 가구일체, 금연, 직장인 또
는 학생환영. 메세지요망
571-429-2222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시니어(장애인)의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도서관,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물건 거래 사례

- ▶ 1층 주택 (Ground Level) \$490,000 ~ \$570,000
방3, 화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대지 0.3에이커 텃밭 (No HOA)
- ▶ 콘도 (Main Level) \$300,000 ~ \$370,000
방2, 화2 / 1,000 ~ 1,200 SF, 주차 편리한 곳
지열한 콘도피 (\$350 내외, Water & Trash 포함)
- ▶ 골프장 커뮤니티 Luxury House / Condo \$510,000 ~ \$600,000
방3(2), 화2, 1 Garage Gate Community 55+ Senior
- ▶ 근린, 전원생활, 주말농장 \$350,000 ~ \$650,000
도심으로부터 30분 ~ 1시간 근린 생활권,
대지 1에이커 이상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급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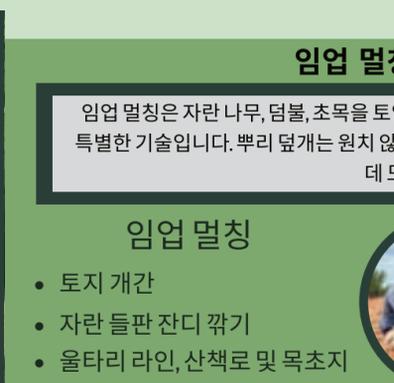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Dan: That was a great lecture.
 댄: 강의가 정말 좋았어.
 Paula: Yes it was. He's a very good teacher.
 폴라: 맞아 좋았어.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Dan: There is so much about American History that I didn't know.
 댄: 미국 역사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Paula: This lecture was certainly an eye opener.
 폴라: 이 강의는 확실히 미국사에 두 눈을 뜨게

해 줬어.
 Dan: Do you want to grab a bite?
 댄: 뭐 좀 먹을래?
 Paula: Sure. Where do you want to eat?
 폴라: 그래. 어디서 먹고 싶어?
 Dan: We could go to the student cafeteria.
 댄: 학생 휴게실에 가도 되고.
 Paula: Or how about that new cafe off campus.
 폴라: 아니면 캠퍼스 밖에 새로 생긴 카페 어때.

an eye opener; 두 눈을 뜨게 해 주는 사건, 경험

Two students are talking at the end of a class.
 (수업을 끝낸 두 학생이 이야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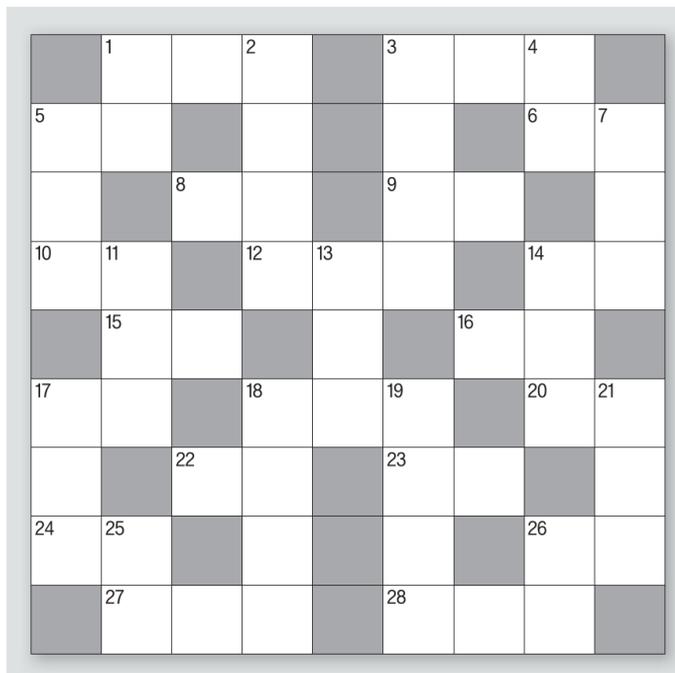
Dan: Can we get back in time for our last class?
 댄: 마지막 수업 시간에 맞춰 돌아올 수 있겠어?
 Paula: Sure. The cafe is walking distance.
 폴라: 물론이지. 도보 거리에 있으니까.

▶off campus (on campus): 캠퍼스 밖에 (캠퍼스 안에)
 "I'm renting an apartment off campus."
 (캠퍼스 밖 아파트를 얻으려고요.)
 ▶(something) is walking distance: (무엇이) 도보 거리 안에 있다.
 "The beach is not far from my house. It's walking distance."
 (바닷가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요. 도보 거리에 있어요.)

기억할만한 표현

▶ grab a bite: 무엇을 먹다
 "I'm going to grab a bite before I go to the mall."
 (쇼핑 몰에 가기 전에 무얼 좀 먹으려고요.)

날말퀴즈



가로열쇠

(1)몸을 왼쪽으로 90도 틀어 돌아서라는 구령
 (3)오줌을 만들어 배설하는 기관 (5)피우다가 남은 작은 담배 도막 (6)청각 장애인이 몸짓과 손짓으로 하는 말. 수어 (8)연극이나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 (9)굵고 큰 나무 (10)화목하고 금실이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새 (12)고인돌이나 석관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레에 돌을 쌓아 둔 것 (14)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오늘이죠 (15)단맛이 있으며 다른 약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므로 모든 처방에 널리 쓰이는 약재 (16)몸 표면을 싸고 있죠. 살갓 (17)누이의 아들 (18)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내놓은 다과를 차린 상 (20)확신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하는 말 (22)술정에서 술을 파는 여인. 김홍도의 <주막> 풍속화를 보면, 초가지붕의 주막 마루에 앉아 ~가 술 국자로 술항아리에서 술을 뜨고 있다 (23)차선 밖의 가장자리 길 (24)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문제 삼지 않음 (26)눈에 생긴 병 (27)별을 이어 사물이나 인물, 동물을 연상하도록 이름을 붙인 것. 성좌. 큰곰자리, 오리온자리 따위 (28)겨울의 금강산

세로열쇠

(1)배가 압초에 얹힌, 곤경에 빠짐 (2)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일이나 함부로 맞닥뜨림 (3)비가 오려고 하거나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 (4)대열의 앞에 서서 기를 드는 일을 맡은 사람 (5)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소견이 좁은 사람 (7)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주머니가 ~이라도 모자라겠다(남비하지 말라는 말) (11)한 발은 들고 한 발로만 뛰는 짓 (13)싸움에서 용감하게 활약하여 공을 세운 이야기 (14)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17)바닷물고기의 살을 으개어 반죽하여 익혀서 응고시킨 식품. 어묵 (18)큰 잔으로 소주를 마시는 일. 큰 잔으로 소주를 파는 집. □□□□ (19)돌봐 줄 주인을 잃은 개와 같은 처지. 여기저기서 천대를 받으면서도 비굴하게 얻어먹으려 기어드는 가련한 꼴. □□□□ (21)고운으로 열처리한 금속 재료를 물이나 기름 속에 담가 식히는 일 (25)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태양을 초점으로 포물선이나 타원 궤도를 도는 별. 혜성, 꼬리별 (26)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뒷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스도쿠

				5		6		4
	8		1	7	3	5		
5	2	9		6	4			
					8			
4		3		2			5	8
7	5					3	1	2
2	4	5			9	8	7	3
1			2					5
				4	5	2	6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9	2	5	4	3	7	6	8
5	6	4	7	8	2	9	3	1
3	7	8	6	1	9	5	4	2
2	1	3	9	6	4	8	5	7
8	5	6	1	2	7	3	9	4
9	4	7	8	3	5	2	1	6
7	3	1	4	9	8	6	2	5
6	2	5	3	7	1	4	8	9
4	8	9	2	5	6	1	7	3

	구	륜	卍		ㄱ	ㅅ	뽀	
ㄹ	ㄱ		ㄹ		ㅁ		ㄹ	놈
문		ㄹ	ㄹ		ㅁ	ㅅ		ㄱ
ㄹ	ㅅ		ㅅ	ㄹ	ㄱ		ㄹ	ㅅ
	ㅁ	ㅅ		ㅁ		ㅁ		
ㅁ	ㅁ		ㅅ	ㅁ	뽀		ㅁ	ㅁ
ㅅ		놈	ㄱ		ㅁ	ㅁ		ㅅ
뽀	ㅅ		ㄹ		ㅁ		ㅁ	ㅁ
	ㄱ	ㅁ	ㅁ		ㅁ	ㅁ	ㅁ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지역

매매 매매 구입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35-8925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쿡/쿡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꿈을 위한 약속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전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로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로 샵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홈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취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쫄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상담 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JAWS Topokki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